

목차

- | | |
|----------------------|------------------|
| I. 머리말 | V. 송국리문화의 확산과 전환 |
| II. 유적의 입지와 분포 | 1. 송국리문화의 확산 |
| III. 송국리문화의 시기구분과 변천 | 2. 송국리문화의 전환 |
| 1. 주거지의 변천 | VI. 맺음말 |
| 2. 출토유물의 변화양상 | |
| IV. 송국리문화의 유입과 수용 | |
| 1. 송국리문화의 유입 | |
| 2. 송국리문화의 수용 | |

요약

본고는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양상에 대한 연구이다. 제주지역의 송국리문화는 금강유역에서 호남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에 송국리문화가 수용되고 전개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수용)는 A형의 송국리형주거지가 주로 축조된다. 토기는 재지계의 직립구연토기와 삼양동식토기가 확인되며 외래계의 점토대토기와 흑색마연장경호 등이 동반 출토된다. 반면 석기는 편인석부, 일단병식석검, 편평삼각형석촉 등이 출토되고 있다. 1단계는 B.C.4~2세기경에 해당한다.

2단계(확산)는 주거지의 규모가 다소 축소되며 A형이 지속적으로 축조되지만 B형과 C형 등 다양한 형태가 출현하게 된다. 토기는 직립구연토기가 소멸하고 삼양동식토기가 일부 잔존하고 있으나 대부분 외도동식토기로 전환되는 단계이다. 이외에도 高杯型土器, 盤型土器, 토기뚜껑 등 새로운 기종이 출현한다. 석기는 식량처리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철기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단계는 B.C.1~A.D.2세기경에 해당한다.

3단계(전환)는 송국리형주거지가 일부 잔존하고 있으나 외도동식주거지로 전환되면서 소멸되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기는 이전 단계의 기종이 대부분 소멸하고 외도동식토기로 단일화되고 있으며 일부 마한계 토기가 동반 출토되고 있다. 석기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식량처리구를 제외하고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철제품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3단계는 A.D.3~4세기경에 해당한다.

주제어 송국리문화, 송국리형주거지, 외도동식주거지, 삼양동식토기, 외도동식토기

제주지역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金慶柱*

I. 머리말

제주도는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는 海上中에 형성된 독립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연유로 동 지역 고고학적 문화양상이 한반도는 물론 남해안지역과도 항상 괴리된 형태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제주의 신석기시대 이후 출현하는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는 그 유사성이 확인될지언정 한반도와 달리 매우 큰 시기폭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면 알 수가 있다(이청규 1995). 이에 반해 신석기시대의 경우 다수의 연구자들이 한반도 남해안과 제주지역의 고고학적 물질문화에 대해 동시기성을 상정한 점을 보면 너무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오연숙 2004; 이영덕 2004).

한국 고고학에서 송국리문화는 청동기시대의 한 시기를 확정하는 중요한 물질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송국리형주거지를 비롯한 다양한 출토유물의 조합은 송국리유형으로 설정되어 청동기시대 후기(안재호 2006a)의 문화특질을 이해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송국리문화의 출현배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異見이 존재하고 있다(안재호 1992; 이홍중 1996; 김장석 2003; 송만영 2006a; 나건주 2009; 이형원 2009). 또한 호서·호남지역과 대구 이남의 영남지역에서 주로 확인되어 한반도 남부지역의 문화유형으로 고착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구주지역과 제주지역은 물론이고 최근 강원지역에서도 송국리형주거지가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송국리문화의 범위가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주지하다시피 제주지역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삼양동유적을 시작으로 송국리형 주거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화순리, 예래동유적 등 대규모 취락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제주지역의 송국리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상당부분 축적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별 취락의 성격은 물론이고 제주지역에 유입된 배경과 주거구조의 변화양상 및 유물조합상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진한 편이다. 또한 송국리문화의 구체적인 전개양상과 편년문제 등 앞으로 규명해야 할 부분 역시 산적해 있다.

* (재) 제주문화유산연구원

** 본고는 제3회 한국청동기학회 발표요지를 일부 수정·보완한 내용이다.

본고는 청동기시대 후기에 유행했던 송국리문화가 제주지역에 수용되고 전개되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확인된 송국리단계의 주거구조 및 유물조합상의 변천과정을 검토하고 그 전개 및 소멸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유적의 입지와 분포

제주도 선사시대의 취락조성에 있어서 입지의 선택에 관한 문제는 생활 혹은 생업조건과 관련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비중있는 입지조건은 물과 식량자원이다. 따라서 정주유적의 입지는 1차적으로 용수조건과 높은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토양조건의 유리함은 농경은 물론 토기원료로서의 적정성을 갖추게 된다(이청규 1995, 200~201쪽).

먼저 물과 관련된 제주도의 용천수 분포를 보면 대부분 용암류 경계면이나 말단부에서 용출하고 있으며 용암류의 가장자리인 해안선을 따라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표1)을 참고하면 해발 200m 이하인 저지대 용천수가 전체의 92.3%(841개소)에 해당하며 해발 100m 이하에 위치하는 용천수는 771개소(84.6%)에 해당한다(박원배 2006, 160~164쪽).

표 1. 제주도의 지대별 용천수 분포현황 (박원배 2006에서 인용)

지대 지역	저지대 (해발 200m 이하)	중산간지대 (해발 200~600m)	고지대 (해발 600m 이상)	합계
제주시	489(53.7%)	37(4.1%)	14(1.5%)	540(59.3%)
서귀포시	352(38.6%)	12(1.3%)	7(0.8%)	371(40.7%)
합계	841(92.3%)	49(5.4%)	21(2.3%)	911(100%)

또한 해안저지대에 분포하고 있는 용천수의 일일 용출량을 살펴보면 5,000톤/일 이상되는 용천수는 40개소 가운데 4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발 100m 미만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해발 100m 미만인 저지대의 평탄대지 및 저구릉지가 비교적 용수조건이 매우 양호함을 알 수가 있다. 한편 제주도는 토양조건이 불리하여 수전과 같은 농경이 어렵기 때문에 전작지대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러한 전작지대 역시 토양조건이 양호한 곳이 대상지역에 해당한다(이청규 1995, 201쪽). 제주도의 토양조건을 살펴보면 크게 4개의 토양개황도가 작성된다¹⁾. 그 결과 동귀-구엄-용흥토양군은 동북부~서남부에 이르는 해발 100m 미만의 해안 저지대 및 평탄대지에 해당하고 있다(농

1) 제주도의 토양개황도를 살펴보면 ① 동귀-구엄-용흥 토양군 ② 중문-오라-구좌 토양군 ③ 평대-행원-민악토양군 ④ 흑악-노로-적악 토양군 등 4개군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①군이 용암류평탄지로서 매우 양호한 미사식양질토양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②군과 ③군은 용암류대지로 자갈이 다량 포함된 토양이며 ④군은 산악지형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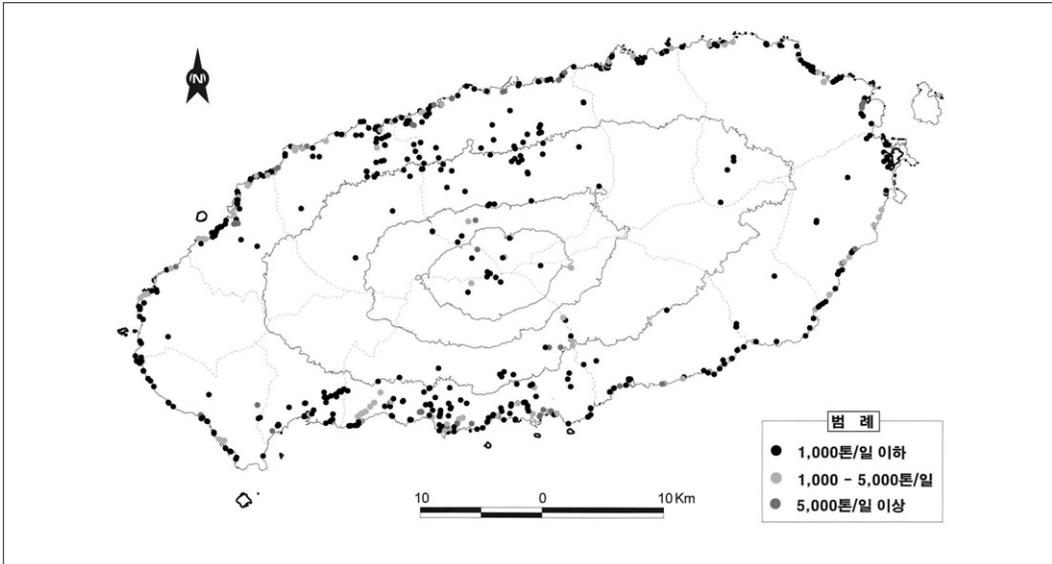


그림 1. 제주도 용천수 및 용출량 분포도(5,000톤/일, 제주도 1999에서 인용)

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197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의 정주취락과 관련된 입지조건으로 용천수와 토양조건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용천수의 경우 해발 100m 미만의 해안저지대를 중심으로 대부분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그림1)을 참고하면 비교적 용천수가 밀집되어 있고 특히 5,000톤/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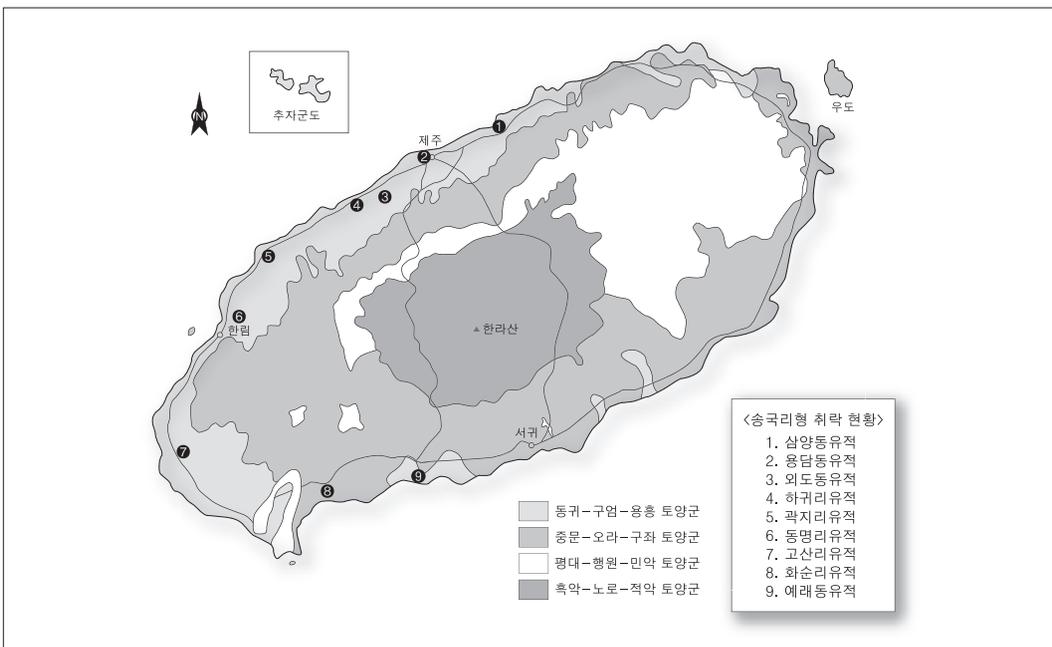


그림 2. 제주도 토양개황도와 송국리형취락 분포도

상의 용출량을 보이는 용천수가 다수 분포하는 지역²⁾은 대부분 선사시대유적이 분포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용수조건이 취락 조성의 중요한 입지적 요소에 해당하고 있다.

특히 그림1)~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조사된 송국리형취락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술한 용천수 및 토양조건이 분포하는 지역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송국리형취락이 조성된 곳은 대체로 해안에 인접한 평탄대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단의 주변지역으로는 하천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 많다.

결과적으로 송국리문화의 유입과 함께 제주지역으로 확산·전개되면서 취락을 조성하는 입지여건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수와 토양 분포조건이 최우선적 요건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동남부의 신천리 일대와 동북부의 종달리 일대 역시 용천수가 풍부하지만 송국리형취락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보면 토양조건 역시 야외 정주취락을 조성하는 중요한 입지선택의 변수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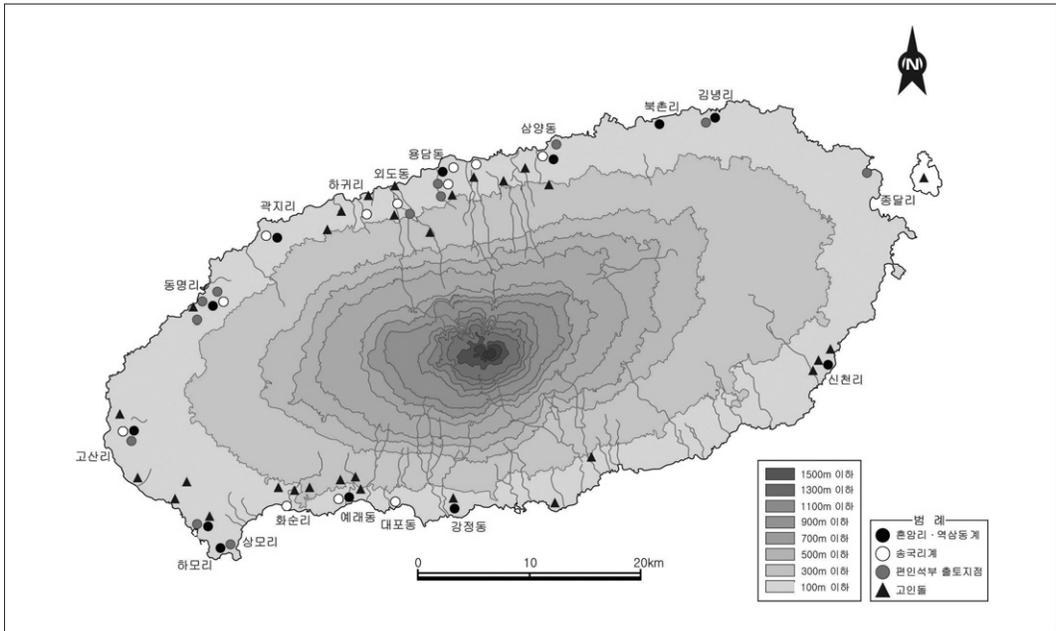


그림 3. 제주도 하천분포 및 유적위치도

- 2) ① 삼양동·용담동·외도동 일대 ② 괘지리·동명리·신창리 일대 ③ 일과리·사계리 일대 ④ 화순리·예래동 일대 ⑤ 대포동·강정동·서귀동 일대 ⑥ 하례·신례리 일대 ⑦ 신천리·신평리 일대 ⑧ 종달리 일대 등 총 8개 지역군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 3) 종달리유적은 점토대토기집단이 도래한 후 장시간 점유했던 유적에 해당한다. 또한 5,000톤/일의 용출량을 보이는 용천수 역시 3개소가 분포하는 점으로 미루어 유적의 입지로서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토양조건에 있어서는 중문-오라-구좌 토양군에 해당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1급의 토양조건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조사가 적어 단정할 수 없지만 송국리문화 단계에 이미 이러한 용수와 토양조건을 모두 구비한 지역이 점유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도래한 점토대토기집단의 점유지역으로는 송국리집단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점유하지 못했던 곳을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한다.

앞서 살펴본 취락조성의 입지조건 외에 중요시되는 요건으로는 식량자원의 획득과 대외교류의 입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송국리문화 단계는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농경을 통해 잉여생산물이 증가하면서 취락이 확대되고 또한 저장과 소비와 관련된 전문적인 취락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장석 2008; 안재호 2009). 따라서 송국리형취락의 형성은 일반적으로 농경의 확대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송국리형취락에 대한 조사에서 농경과 관련된 경작유구는 확인된 예가 없다. 특히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다양한 탄화곡물을 살펴보다도 수전농경과 관련된 곡물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조현중 2008, 190쪽). 또한 후술하겠지만 출토 석기류 역시 농경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만한 적극적인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한편 조선시대의 농경활동을 보면 동귀-구엄-용흥토양군에서는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많고 인구부양력이 높은 보리·조 농사가 주로 이루어졌다. 반면에 이외의 토양군은 제주도 면적의 83%를 차지하는 회산회토 지대로 보리의 생육에는 불리하고 기장, 피 등이 주로 재배되었다(김오진 2009, 55쪽). 이러한 배경에는 제주지역의 토양조건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⁴⁾. 따라서 제주지역 송국리형취락 단계의 식량자원은 결국 수렵채집과 어로활동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취락의 입지를 고려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해안에 인접한 저지대 혹은 평탄 대지상에 취락을 형성하는 점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 취락내 생활 필수품 중에서 외부로부터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선진지역과의 대외교류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송국리형취락은 대체로 서북부~서남부지역 일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데 남해안 연안과 직접적으로 마주보고 있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으로 선진문물과의 교류 및 수용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해상항로와 관련된 유리한 입지조건이 곧 대외교류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즉 송국리형취락의 형성조건 역시 외부와의 교류를 위한 자연적인 포구의 지형을 갖추고 있는 곳이 선택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⁵⁾.

결론적으로 보면 제주지역 송국리형취락의 입지조건은 크게 네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용수조건(용출량 5,000톤/일), 둘째 토양조건(동귀-구엄-용흥토양군), 셋째 식량획득조건(반농반

4) 아래의『高麗史』「世家」〈고려 문종 12년(1058)〉 8월 7일條를 참고하면 제주지역이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척박한 환경이었는지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농경과 관련된 석기류 등의 제작이 매우 소극적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김중서의 1454).

원문	내용
十二年八月乙巳 … 上略 … 內史門下省上言 … 中略 … 且耽羅地瘠民貧 惟以海產乘木道 經紀謀生.	12년 10월 8월 7일, … 상략 … 내사문학성에서 아뢰기를, … 중략 … 또 탐라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고기잡이와 배타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 17세기대(1678~1700년경) 제작된『耽羅圖』를 참고하면 포구가 두개 이상 조성된 곳과 비교적 큰 마을이 형성된 곳은 대부분 송국리형취락이 조성된 지역과 중복되는 점유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어 및 수렵채집 등 복합적인 식량원), 넷째 대외교류조건(자연적인 포구) 이다. 따라서 전술한 네 가지의 입지적 조건을 모두 갖춘 유적을 살펴보면 삼양동, 용담동, 외도동, 광지리, 화순리, 예래동 등이 해당한다. 즉 대규모 취락의 경우 이러한 입지적 조건을 대부분 갖춘 유적으로 입지선택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각 지역별 중심취락에 해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Ⅲ. 송국리문화의 시기구분과 변천

송국리문화는 송국리형주거지와 외반구연호, 유구석부, 유경식석검, 삼각형석도 등을 표식으로 하는 한국 청동기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문화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송국리문화의 출현과정과 상한연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대략적인 중심시기는 기원전 8~6세기경에 유행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이종철 2000; 안재호 2006a; 이홍종 2006a; 김규정 2007). 즉 한반도에서 송국리문화는 기원전 8세기경 출현하여 성행하다 대략 5~4세기경 점차 점토대토기문화로 전환되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박진일 2007a; 이종철 2008).

한편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최근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송국리문화가 한반도에서 소멸된 이후 더욱 성행하고 지속되고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김경주 2005; 2009).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야요이 초기~전기에 송국리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안재호 2006b, 22쪽; 이홍종 2006b, 253~254쪽) 한반도에서 소멸된 송국리문화는 바다 건너 제주와 일본으로 파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제주지역 송국리문화의 유입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해안 일대 송국리문화의 성행과 소멸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조건일 것이다. 우선 여기서는 제주지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을 대상으로 송국리형 주거형태와 출토유물의 조합상을 검토하고 변천양상을 통해 시간적 선후관계를 설정하고자 한다⁶⁾.

1. 주거지의 변천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확인된 송국리형 취락 중 6군데 유적에서 총 207동이 조사되었다. 제주지역에서

형태	구분	형태	구분
A		E	
B			
C			
D			

그림 4. 타원형구덩이 형식분류 모식도

확인되는 송국리형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타원형에 가까운 원형계이며 말각방형을 포함한 방형계의 주거지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⁷⁾. 즉 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송국리형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원형으로 단일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주거지의 형식분류는 결국 내부구조인 타원형구덩이의 형태에 의해 구분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제주지역 송국리형주거지는 타원형구덩이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그림4)와 같이 크게 5개 형식으로 구분되며 형식별 분포도를 보면 표2)와 같다.

표 2. 송국리형주거지의 형식별 분포도

분류 유적명	A		B		C		D		E		합계	
	갯수	%	갯수	%								
삼양동유적	40	72.8	6	10.9	4	7.3	4	7.3	1	1.7	55	26.6
용담동유적	9	90.0	0	0	0	0	1	10.0	0	0	10	4.8
동명리유적	1	100	0	0	0	0	0	0	0	0	1	0.5
화순리유적	48	36.6	31	23.7	19	14.5	16	12.2	17	13.0	131	63.3
곽지리유적	0	0	0	0	0	0	0	0	3	100	3	1.4
외도동유적	0	0	0	0	0	0	0	0	7	100	7	3.4
합계	98	47.3	37	17.9	23	11.1	21	10.2	28	13.5	207	100

상기의 표2)에서 보면 삼양동(72.8%)·용담동(90%)·동명리유적의 경우 주거지의 형태가 A형이 66동 중에서 50동(75.8%)으로 압도적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화순리유적은 A형(36.6%)과 B형(23.7%), C형(14.5%)의 순으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A형과 B형의 점유율은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화순리유적은 주거지의 중복관계를 통해 타원형구덩이의 형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A→B→C형으로 변화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1044쪽). 이와 같은 변화양상은 후술할 토기의 변천양상을 통해서도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2)의 형식별 분포도를 참고하면 제주도의 송국리형취락은 삼양동·용담동·동명리→화순리유적으로의 상대서열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화순리유적에서는 모두 137동의 주거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서 D형과 E형

6)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확인된 송국리형취락은 삼양동, 용담동, 외도동, 하귀리, 동명리, 곽지리, 고산리, 화순리, 예래동유적 등이 있다. 하귀리와 고산리유적은 아직 정식보고서가 출간되지 않았고 예래동유적은 현재 조사중에 있어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7) 화순리유적을 제외하고는 방형계의 주거형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화순리유적에서는 137동의 주거지 중에서 6동 정도가 벽체 일부만이 말각방형상의 평면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반층인 암반층을 피해 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벽체는 말각방형상으로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970~971쪽).

은 33동(24.1%)이 확인되었다. 선행하는 삼양동·용담동 단계와 비교하면 화순리 단계에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형태가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제주지역의 송국리형주거지는 시간의 변화속에서도 원형의 평면형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타원형구덩이의 경우는 비교적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송국리형주거지의 말기적 양상으로 이해되고 있는 괄지리와 외도동유적의 주거지 형태를 보면 대부분 E형에 포함되고 있어 주목된다⁸⁾.

재론하면 제주지역의 송국리형주거지는 평면형태의 경우 지속적으로 원형이 유지되고 있으며 반면에 타원형구덩이의 형태는 내부 양단에 주혈이 배치된 형태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외부 양단으로 주혈배치가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주거지의 형태는 말기에 접어들면 타원형구덩이만 잔존하거나 소멸하며 양단 주혈의 배치가 불규칙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 송국리형취락은 삼양동(수용)→화순리(확산)→외도동(전환)으로의 단계설정과 함께 시간적 순서배열이 상정된다.

2. 출토유물의 변화양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지역 송국리형주거지는 대략 3단계로 단계설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주거지의 변화양상을 바탕으로 각 단계별 출토유물 조합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제주지역 송국리문화 단계의 토기변천도

기종 단계	직립구연 (내만)	점토대토기		흑도 장경호	외반구연호	파수부호	두형토기 (고배형토기)	원뿔형토기
		원형계	삼각형					
1단계	잔존	잔존	잔존	잔존	삼양동식	환상(다수) 우각형 유두형	두형토기 대부발	출현
2단계	소멸	소멸	소멸	소멸	삼양동식 외도동식	환상(다수) 봉상 출현	고배형토기 출현	?
3단계	소멸	소멸	소멸	소멸	외도동식	환상 봉상(다수)	소멸	잔존

표3)을 참고하면 먼저 1단계는 직립(내만)구연토기,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삼양동식토기, 파수부토기, 두형토기, 원뿔형토기 등이 확인된다. 다음 2단계에는 직립구연계토기와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등이 소멸하고 삼양동식토기는 일부 잔존하고 있으나 외도동식토기가 우세하게 나타

8) 송국리형주거지의 말기형으로 여겨지는 유적에서는 모두 E형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화순리단계 이후 C형의 점유율이 높은 취락유적이 확인될 경우 양 유적의 중간단계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화순리유적의 경우에도 각각의 형식간 시기차가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과도기를 거치면서 전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는 과도기에 해당한다. 또한 이 단계에는 파수부토기의 변화양상이 간취되며 고배형토기 등 제의와 관련된 토기가 급증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가 되면 외도동식토기로 단일화되며 일부 괄지리식토기가 출토된다. 또한 환상의 파수부토기는 대부분 소멸하고 봉상의 파수부토기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제주지역 송국리형주거지 출토 점토대토기 현황

단계	형태		원형	말각방형	타원형	삼각형
	유적					
1단계	삼양동유적		■	■	■	■
	용담동유적		■	■	■	
	동명리유적		■			
2단계	화순리유적				■	
3단계	외도동유적					
	괄지리유적					

삼양동단계는 무문토기인 재지계의 직립(혹은 내만)구연토기가 다수 잔존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외래계의 원형점토대토기가 동반 출토되고 있다. 특히 원형점토대토기는 한반도에서 제작된 후 유입된 토기가 확인되는 점을 보면 적어도 남한지역에서 유행할 당시의 토기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점토대토기는 단면형태가 타원형계 및 말각방형의 변화된 형태로 확인되고 있으며 재지의 태토로 제작된 제주산 점토대토기 역시 출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따라서 제주지역 출토 점토대토기는 유입단계-재지화단계-소멸단계로 구분된다.

한편 제주지역 송국리형취락에서 출토된 원형점토대토기의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삼양동유적의 경우 외래계와 재지계토기가 비슷한 비율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원형점토대토기가 한반도에서 유입된 이후 재지화되는 과정은 삼양동단계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삼양동유적에서 타원형과 말각방형계의 외래계 점토대토기가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남해안지역의 점토대토기 집단과 지속적인 교류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용담동유적의 경우에는 재지계토기가 다소 우세하게 확인되는데 원형점토대토기의 재지화가 한층 진행된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외래계토기는 일반적으로 도래지역에서 유행할 시점에 양 지역의 교류와 접촉에 의해 유입되는데 초기에는 유입지역의 토기가 바로 수입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재지화 단계를 거쳐 변화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전형적인 한반도계 무문토기가 유입된 후 서일본지역에서 다소 변화하거나 야요이토기의 요소가 가미된 변화형이 출현하며 이후 다시 유입 당시의 전형적인 토기에서 벗어난 형태로 변화되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後藤直 2006, 115~116쪽).

결국 삼양동단계는 송국리형주거지가 채택된 후 남해안 일대의 점토대토기가 유입되면서 재지화 과정을 거치는 단계의 취락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용담동유적은 재지화된 원형점토

대토기와 함께 역시 재지화된 말각방형계의 변형된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점으로 미루어 시기적으로 다소 후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⁹⁾. 하지만 유구의 속성이나 배치관계 및 출토유물의 양상을 고려해 볼 때 획기를 구분할 정도의 시간차는 고려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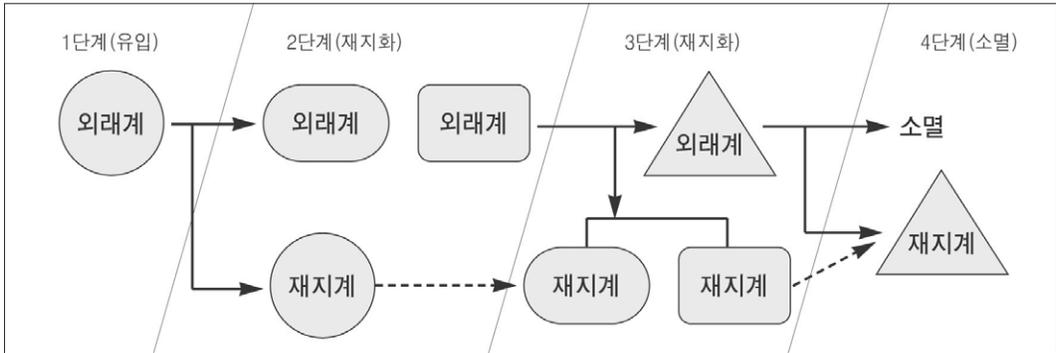


그림 5. 제주지역 점토대토기 유입과 전개 모식도

한편 적갈색경질토기는 1단계(삼양동 단계)에 출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종별로 보면 외반구연호, 파수부호, 발형토기, 대부발, 원뿔형토기, 소형토기 등 다양하게 확인된다(김경주, 2001, 62~63쪽). 반면 2단계(화순리 단계)에는 고배형토기와 盤型土器, 토기 개(뚜껑), 심발형토기 등 신기종이 출현하게 된다(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1028~1034쪽). 하지만 3단계(외도동 단계)가 되면 기종이 매우 단순화되어 외반구연호와 파수부토기, 토기 개 등이 잔존하고 대부분의 기종은 소멸하게 된다. 특히 기종구성의 단순화와 함께 외반구연호의 경우 일정한 기형으로 균일화되는 현상이 간취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주지역 송국리형취락에서 출토되는 적갈색경질토기는 외반구연호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반구연호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김경주 2007).

표 5. 외반구연호 최대경 위치

단계	유적명	분류	최대경 위치(구경:동최대경)				합계	
			1:1.10이상(동부)		1:1.0이하(구연부)		갯수	%
			갯수	%	갯수	%		
1단계	삼양동		40	62.5	24	37.5	64	25.7
	용담동		7	46.7	8	53.3	15	6.0
	동명리		5	50.0	5	50.0	10	4.0
2단계	화순리		25	28.4	63	71.6	88	35.3
3단계	외도동		12	32.4	25	67.6	37	14.9
	꼭지리		8	22.9	27	77.1	35	14.1
합계			97	39.0	152	61.0	249	100

표5)에 의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최대경의 위치가 동부에서 구연부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외반구연호는 최대경의 위치가 동부→구연부로 이동하는 시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부 최대경의 위치도 동체 중위에서 상위로 이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연부의 외반정도가 후행할수록 강하게 외반되며 토기 전체적으로는 장동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김경주 2007, 201~202쪽).

부연하면 화순리단계에 접어들면 최대경의 위치가 동부→구연부로 전환되고 있으며 장동화되는 현상이 뚜렷하고 외반정도는 이전 단계에 비해 매우 강하게 변화되며 토기 기형도 획일성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현상이 간취된다. 이후 외도동단계가 되면 이러한 외반구연호는 일률적인 기형으로 통일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최대경이 구연부에 위치하는 토기가 급증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

한편 남한지역 점토대토기 단계의 파수부토기는 파수형태에 따른 선후관계가 인정되는데 환상파수→조합식 우각형파수→봉상형파수로의 변화가 상정된다(서길덕2006; 박진일 2007b).

반면 제주지역에서 출토된 파수부토기의 변화양상을 보면 아래의 표6)과 같다.

표 6. 제주지역 송국리문화 단계의 파수부토기 변화양상

단계	형태 유적명	환상파수		우각형파수		유두형파수		봉상파수		합 계	
		갯수	%	갯수	%	갯수	%	갯수	%	갯수	%
1단계	삼양동유적	26	89.7	3	10.3	0	0	0	0	29	19.5
	용담동유적	1	50	0	0	1	50	0	0	2	1.3
	동명리유적	3	23.1	0	0	9	69.2	1	7.7	13	8.7
2단계	화순리유적	27	84.4	0	0	0	0	5	15.6	32	21.5
3단계	외도동유적	5	7.5	0	0	0	0	62	92.5	67	45.0
	곽지리유적	0	0	0	0	0	0	6	100	6	4.0
합 계		62	41.6	3	2.0	10	6.7	74	49.7	149	100

상기한 표6)을 참고하면 제주지역 송국리문화 단계의 파수부토기에 대한 분석결과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삼양동유적에서는 환상 파수부토기의 빈도수가 매우 높은 편이며 이에 후행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화순리유적에서도 환상 파수의 점유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다만 화순리유적의 경우 후행하는 외도동유적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봉상파수가 일부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파수부토기는 환상형→우각형→봉상형으로의 변화양상이 인정된다(박진일 2007b).

특히 화순리유적에서는 우각형과 봉상의 혼합형으로 추정되는 파수부토기(제주문화예술재단

9) 용담동유적에서 출토된 원형점토대토기의 개체수가 적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대다수 토기가 재지산태토로 제작된 점으로 미루어 재지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단계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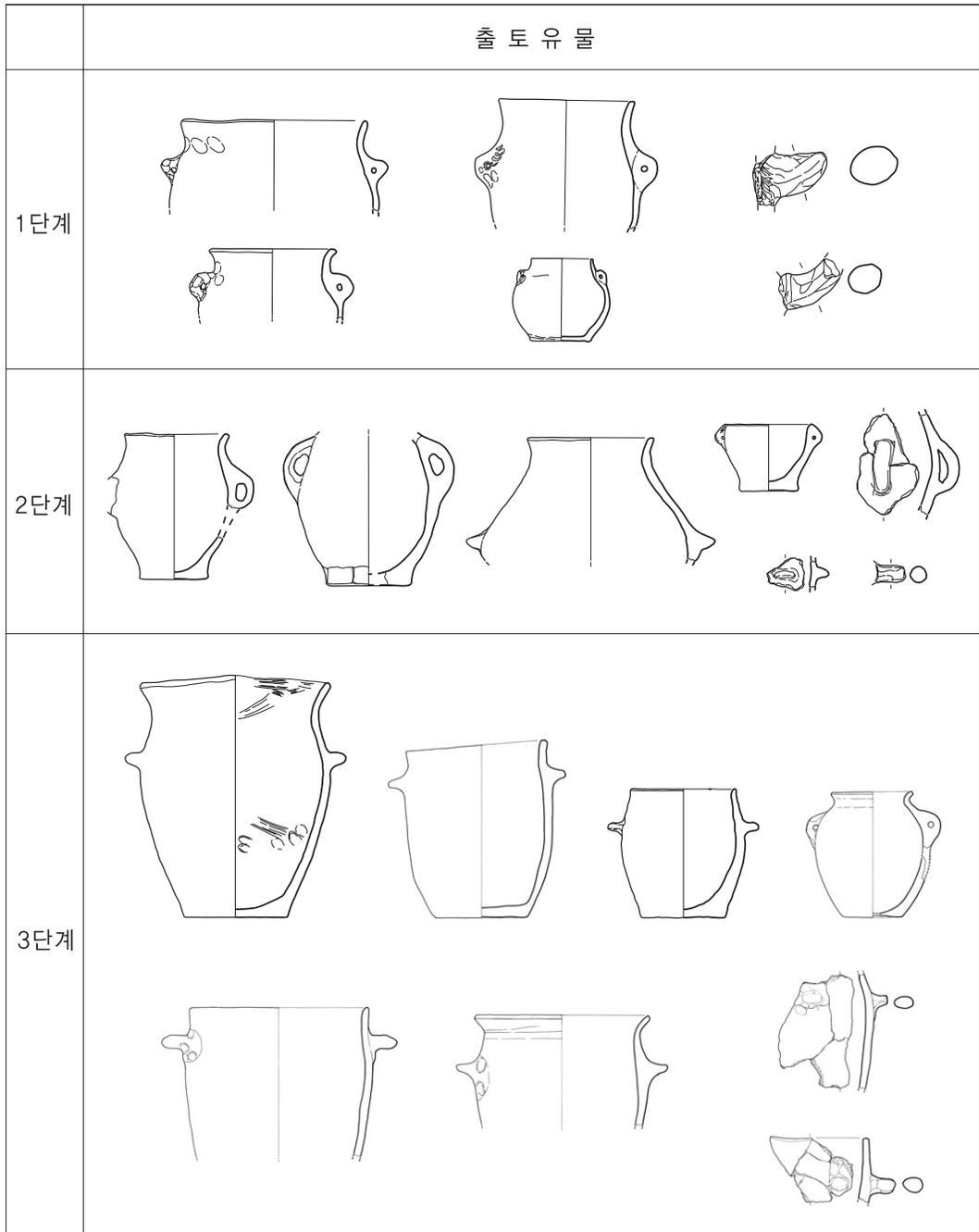


그림 6. 제주도 송국리형주거지 출토 파수부토기 (축척 1/8)

2009, 891쪽)가 환상파수와 함께 동반 출토되는 점으로 미루어 우각형에서 봉상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동반 출토된 적갈색경질토기 외반구연호를 살펴보면 구경 대비 저경은 다소 안정적으로 변화하며 동최대경이 최상위에 형성된 기형으로 화순리유적에서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상파수→봉상파수로의 전환은 화순리단계의 늦은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화순리단계에는 굽이 낮은 형태의 대부발(고배형토기)이 다수 확인된다. 이는 두형토기의 대각이 낮아진 형태로 추정되는데 삼양동 단계의 두형토기는 대각이 높은 장각형 토기와 단각형의 대부발이 함께 확인되지만 화순리에서는 단각형의 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대조적이다¹⁰⁾.

또한 토기 개의 경우 삼양동단계까지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화순리단계에 이르면 출현하는데 크게 3종류로 구분된다. 즉 ①파수가 부착된 나팔형태 ②파수가 부착된 원판형태 ③파수가 없고 드림부가 형성된 원판형태로 구분된다. 반면 외도동단계에 이르면 나팔상의 토기개는 소멸하고 원판형태로 변화한다. 특히 원판형의 토기개는 다시 파수의 형태에 따라 환상, 봉상, 유두형 등 다양하게 확인된다.

다음으로는 제주지역 송국리형취락에서 출토된 다양한 석기의 조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의 유적별 석기조성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7)과 같다¹¹⁾.

표 7. 제주지역 송국리형취락 출토 석기 조성비 현황

분류	유적 구성비 기종	삼양동		용담동		동명리		화순리		곽지리		외도동		합계	
		數	%	數	%	數	%	數	%	數	%	數	%	數	%
굴지구	타제석부	10	3.5	2	4.3	10	20.0	11	4.2	1	1.5	0	0	34	4.3
	소계	10	3.5	2	4.3	10	20.0	11	4.2	1	1.5	0	0	34	4.3
별채구	양인류	9	3.1	1	2.1	2	4.0	3	1.1	0	0	0	0	15	1.9
	소계	9	3.1	1	2.1	2	4.0	3	1.1	0	0	0	0	15	1.9
가공구	편인류	37	12.9	5	10.6	11	22.0	7	2.6	2	2.9	0	0	62	7.9
	소계	37	12.9	5	10.6	11	22.0	7	2.6	2	2.9	0	0	62	7.9
석기 가공구	지석	68	23.7	7	14.9	13	26.0	19	7.2	5	7.2	6	8.5	118	15.0
	소계	68	23.7	7	14.9	13	26.0	19	7.2	5	7.2	6	8.5	118	15.0
수렵구	석촉	12	4.2	0	0	0	0	0	0	0	0	0	0	12	1.5
	소계	12	4.2	0	0	0	0	0	0	0	0	0	0	12	1.5
어로구	어망추	0	0	0	0	0	0	7	2.6	0	0	0	0	7	0.9
	소계	0	0	0	0	0	0	7	2.6	0	0	0	0	7	0.9
식량 처리구	요석	20	7.0	5	10.6	1	2.0	76	28.7	12	17.4	10	14.1	124	15.7
	고석	63	22.0	15	31.9	9	18.0	97	36.6	22	31.9	18	25.4	224	28.4
	마석	8	2.8	5	10.6	0	0	0	0	7	10.1	0	0	20	2.5
	연석	52	18.1	7	14.9	4	8.0	43	16.2	20	29.0	37	52.1	163	20.7
	소계	143	49.9	32	68.0	14	28.0	216	81.5	61	88.4	65	91.6	531	67.3

10) 두형토기의 나팔상 대각은 원형과 삼각형점대토기의 전환단계에 해당하며 삼각형 단계에는 대부발 형태의 토기로 전환된다(서길덕 2006, 347~349쪽).
 11) 표7)의 석기분류는 손준호(2008, 42쪽)의 기종과 기능에 따른 분류방식에 의거 분류하였다.

분류	유적 구성비 기종	삼양동		용담동		동명리		화순리		곽지리		외도동		합계	
		數	%	數	%	數	%	數	%	數	%	數	%	數	%
상징 의례구	곡옥	1	0.3	0	0	0	0	1	0.4	0	0	0	0	2	0.2
	석검	4	1.4	0	0	0	0	1	0.4	0	0	0	0	5	0.7
	검파두식	2	0.7	0	0	0	0	0	0	0	0	0	0	2	0.2
	석환	1	0.3	0	0	0	0	0	0	0	0	0	0	1	0.1
	소계	8	2.7	0	0	0	0	2	0.8	0	0	0	0	10	1.2
	합계	287	100	47	100	50	100	265	100	69	100	71	100	789	100

타제석부는 대부분 굴지구로 이해되고 있으나 벼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서 집중되는 현상을 통해 발농사에 사용되었다는 견해가 있다(平井 勝 1992, 31쪽). 제주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농경과 관련된 정각유구가 확인된 바 없으며 또한 타제석부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농경구도 출토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굴지구나 벌채구는 화전작과 관련된 농경도구로 상정하고 있다(안재호 2006a, 170~171쪽). 반면 수확구와 굴지구, 벌채구, 가공구를 모두 넓은 의미에서는 농경과 관련된 농경구로 이해하기도 한다(손준호 2008, 47쪽).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송국리형취락 단계의 농경관련 도구는 전체 14.1%(삼양동 19.5%, 용담동 17.0%, 동명리 46%, 화순리 7.9%, 곽지리 4.3%, 외도동 0%)에 해당한다. 즉 삼양동→외도동유적으로 갈수록 농경구의 비중이 축소되는데 이는 철기로 대체되면서 석기제작이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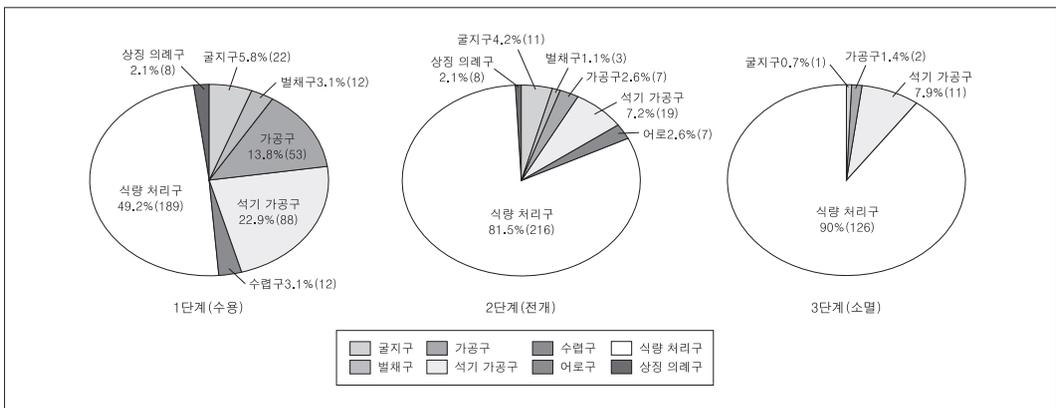


그림 7. 제주지역 송국리형취락지 출토 석기 조성분포도

한편 화순리단계에 접어들면서 굴지구, 벌채구, 가공구, 석기가공구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식량처리구의 점유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¹²⁾. 또한 탐라시대 이후에도 이러한 석기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점을 보면 동시기 생계경제와 밀접한 도구임을 추정케하고 있

12) 식량처리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농경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생계방식으로 채집을 선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손준호 2008, 54쪽).

다. 다만 제주민속박물관 소장유물 중에 삼각형석도(그림 8-25)가 확인되는 점을 보면 이러한 석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제주도의 토양조건상 수전농경에 불리하기 때문에 표7)에서 보는 것처럼 타제석부가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제석부는 벌목용과 목재가공용으로 구분되는데 전자가 합인석부, 후자는 편인석부 또는 편평석부가 해당한다. 특히 수전경작의 경우 이에 적합한 목제 농구의 제작을 위해 합인석부 보다 상대적으로 편인석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안재호 2006a, 170~171쪽). 또한 석축의 경우에도 편평축은 수렵구, 능형축은 무기로 그 기능을 추정하고 있다(손준호 2008, 38~39쪽). 삼양동유적에서 출토된 석축의 경우 평기식의 편평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IV. 송국리문화의 유입과 수용

1. 송국리문화의 유입

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제주지역의 송국리문화는 주거지와 출토유물의 변화양상을 바탕으로 대략 3단계의 시간적 단계설정이 가능하다.

먼저 1단계는 주로 제주 서북부지역인 삼양동과 용담동 일대에 취락이 집중적으로 조성되는 단계에 해당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A형의 주거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토기는 직립구연토기,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삼양동식토기가 확인된다. 석기류는 양인석부가 잔존하며 편인석부, 일단병식석검, 삼각형편평석축 등이 출토된다.

2단계는 송국리형취락의 중심이 서북부에서 서남부지역인 화순리·예래동 일대로 이동하는 단계이다. 주거지의 형태는 전 단계에 유행했던 A형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B형과 C형 등 다양한 형태가 출현한다. 토기는 직립구연토기와 점토대토기가 소멸하고 삼양동식토기가 일부 잔존하고 있으나 대부분 외도동식토기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고배형토기와 반형토기, 토기개, 심발형토기 등 신기종이 출현한다. 이외에도 파수부토기의 경우에는 환상파수→봉상파수로의 전환단계에 해당한다. 반면 석기류는 식량처리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소멸되는 점으로 미루어 이 단계에는 상당수의 도구가 철기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주거형태가 전 단계의 A~C형이 대부분 소멸하고 E형식만 주로 확인되며 타원형구덩이의 기능이 상실되는 단계에 해당한다. 특히 타원형구덩이의 양단 주혈배치는 형식적이거나 혹은 초석을 축조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외도동식주거지와 같이 기본적인 구조는 송국리형주거지의 모티브를 따르고 있으나 내부구조는 보다 발전된 형태가 확인되고 있다. 토기는 외도동식토기로 단일화되며 이전 단계에 보이던 다양한 기종은 대부분 소멸하고 파수부토기와 토기 뚜껑 등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석기는 전단계에 비해 식량처리구외에는 확인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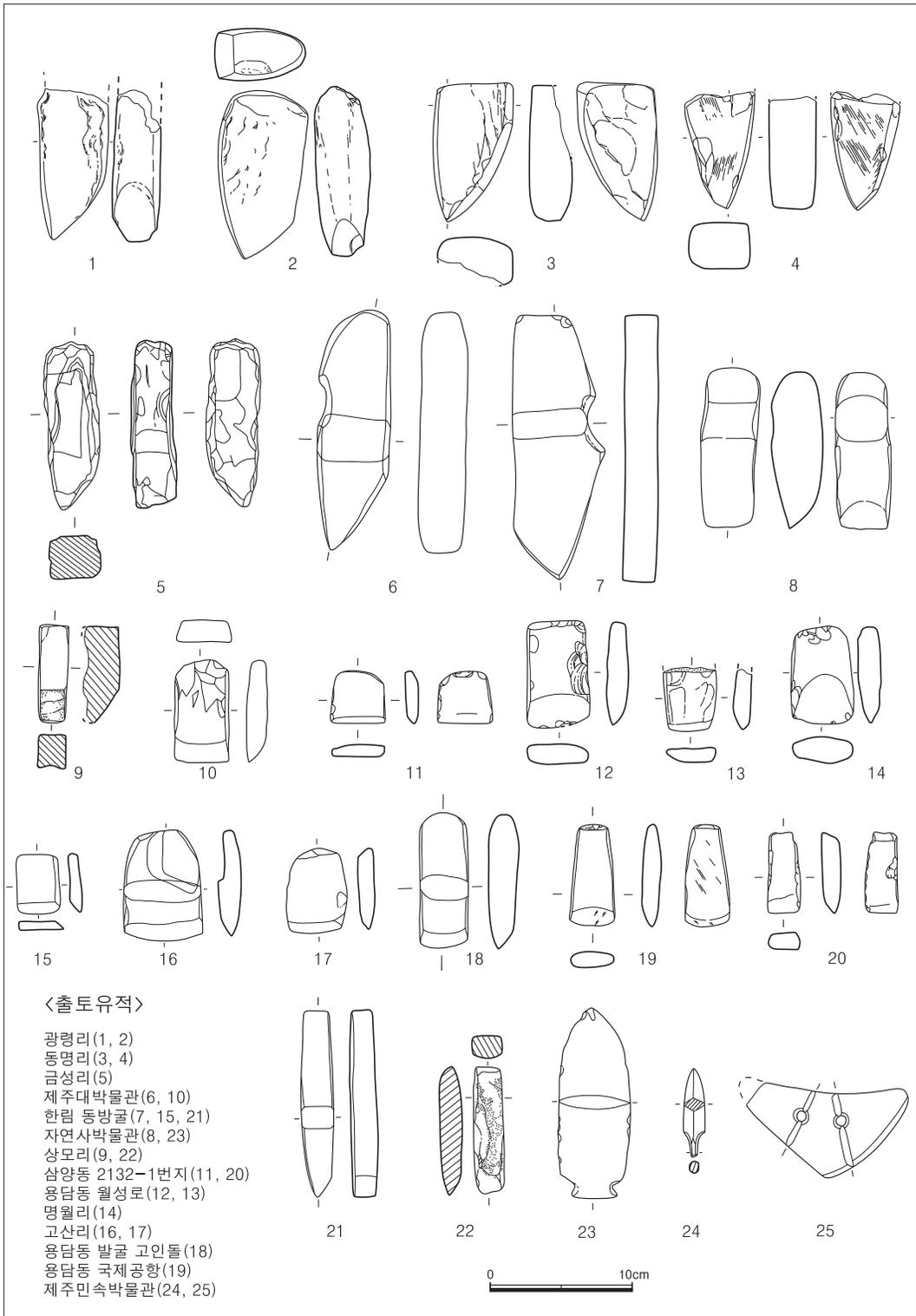


그림 8. 제주지역 출토 편인석부 및 송국리단계 석기류(축척 1/4)

고 있으며 반면 철기의 출토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송국리문화의 초기 유입배경을 살펴보면 호남지역과의 교류와 관련된 접촉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호남지역의 경우에도 결국 호서지역에서 송국리문화가 소멸하기 전에 유입되어 성행하였는데 다만 그 소멸시기가 다소 내려오는 점은 인정될 수 있다(이종철 2008). 즉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시간적 정체성을 고려하면 제주지역 송국리문화의 초기형태는 결국 호서지역의 성행시점↔호남지역의 수용시점↔제주지역의 교류시점을 동시기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상술한 추론은 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최소의 중복기간이 상정되며(庄田 愼矢 2006, 12쪽) 유물이나 유구의 공반상이 동일한 경우 한반도 내에서 그 양자는 동일시기로 간주해야 한다는 논리(안재호 2006a, 32쪽)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적어도 양 지역간 문화양상에서 유사성이 관찰된다면 양자간의 다양한 전파 혹은 이주든 아니면 문화접촉 및 접변이든 상호 지역간 최소한의 교집합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양상의 흐름속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점이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시공간적 범위내에서 양 지역간 동일한 문화양상이 교차 출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한 논리에 기초하면 호서지역에서 송국리형주거지가 전반적으로 성행하고 확산되는 시점에 호남지역은 물론이고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이러한 선진문물에 일부는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호서지역의 송국리문화가 성행하는 시점에 이입되기 시작하는 호남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제주지역에 이러한 물질문화가 일부는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테면 토기와 석기 등 운반·이동이 가능한 물질문화의 이입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송국리문화 단계 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역삼동·혼암리계 토기의 변화양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남한지방 역삼동·혼암리식 토기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초기 복합문양은 점차 단순문양으로 변화되며(김승욱 2006b) 말기에는 송국리단계의 유물조합이 동반되고 있다(고민정 2003; 이진민 2004). 결국 역삼동단계의 유물조합이 늦은 시기로 내려오면서 문양의 단순화가 진행되고 송국리단계의 유물조합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김경주 2007).

제주지역 역삼동·혼암리 단계의 표지적인 유적으로는 상모리유적이 해당한다. 상모리유적의 말기적 토기 변천양상을 살펴보면 복합문양에서 점차 단순문양으로 전환되고 구연단이 외반되는 현상이 확인된다¹³⁾. 반면에 후행하는 하모리유적의 경우도 구순각목+직립(내만)→직립구연토기, 구순각목+외반→외반구연토기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토기의 변

13) 상모리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변천양상을 보면 혼암리식토기→상모리식토기(제지화)→가락동계가 소멸하는 단계(각목공렬토기)→역삼동계가 소멸하는 단계(단순 각목 및 공렬토기)로 단계설정이 가능하다(제주대학교박물관 1990; 이청규 1995, 141~144쪽; 김경주 2007, 194~197쪽).

화양상이 결국 송국리문화의 최초 이입시기에 나타나는 접변현상으로 볼 수 있다(이홍중 2006b, 245쪽; 2007, 32~33쪽; 김경주 2007, 195~197쪽).

한편 송국리문화의 초기 전이현상은 이외에도 다양하게 확인된다. 제주지역 일원의 여러곳에서 유구석부를 포함한 편인석부류와 삼각형석도 등 송국리단계의 석기조합상이 확인되는 점을 보면 알 수가 있다. 특히 서귀포시 대포동유적에서 출토된 송국리형토기와 유경석석검은 대표적인 송국리문화의 유입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모리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류 중 송국리단계에 성행하는 유구석부¹⁴⁾와 편평편인석부, 석착 등 편인류의 석기조합이 증가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상모리단계 말기에 송국리문화가 유입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손준호 2006, 80쪽). 즉 토기와 석기조합상을 살펴보면 상모리와 하모리유적의 종말기는 역삼동·혼암리 문화 말기~송국리문화 초기 단계로의 변천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술하였다시피 제주지역에 송국리문화가 유입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토기와 석기조합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형태의 수용과 채택에 선행하여 토기와 석기류가 먼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후 주거형태가 채택되면서 삼양동을 비롯한 용담동유적 등 제주 서북부지역에 대규모취락이 출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¹⁵⁾.

2. 송국리문화의 수용

주지하다시피 제주지역 송국리형주거지의 초기형태는 평면원형에 A형이 대다수임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A형의 주거지가 처음 제주에 출현하는 배경과 수용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호서지역의 경우를 보면 A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금강유역(중상류와 하류역 포함)에는 IIA형(원형+내부 양단 주혈, 70% 이상 점유)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호남지역의 경우에도 IIA형이 우세하나 전남 동부내륙지역과 남해안지역의 동부지역으로는 B형(필자 분류 C형)과 C형(필자 분류 E형)이¹⁶⁾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인접한 서부경남지역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규정 2006, 24~38쪽).

전술한 바와 같이 제주지역 송국리문화는 결국 금강유역의 송국리문화가 호남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제주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영남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C형의 주거지 비율이 매우 낮고 특히 평면형태에 있어 말각방형의 송국리형주거지가 거의 확인되

14) 유구석부는 현재까지 후기유적에서만 주로 확인되어(손준호 2006, 88쪽) 송국리단계의 대표적인 석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남강유역의 경우에도 4기(원형계의 송국리형주거지+외반구연호)에 접어들면서 유구석부가 출현하는 점을 보면(고민정 2003, 91쪽) 이를 반증해 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상편인석부에서 형식변화한 것으로 선송국리유형 단계에 출현하여 송국리단계에 유행하고 원형점토대토기 단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도 있다(배진성 2001, 37~41쪽).

15) 최근 조사된 한경면 고산리유적에서 무문토기 단순기의 송국리형주거지가 확인되어 주거형태의 채택이 동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

16) 이후에는 필자의 분류안에 따른 형식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보면 영남지역과의 연관성은 상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¹⁷⁾.

결론적으로 제주지역 송국리형주거지의 직접적인 유입경로는 평면형태 원형에 A형의 주거지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금강유역(73%)을 기점으로 호남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시작된다. 이를테면 호남 북서부지역(64%)→서남부지역(55%)→영산강유역(58%)→남해안 서부지역(57%)을 거쳐 제주 서북부지역(삼양동·용담동)으로 유입¹⁸⁾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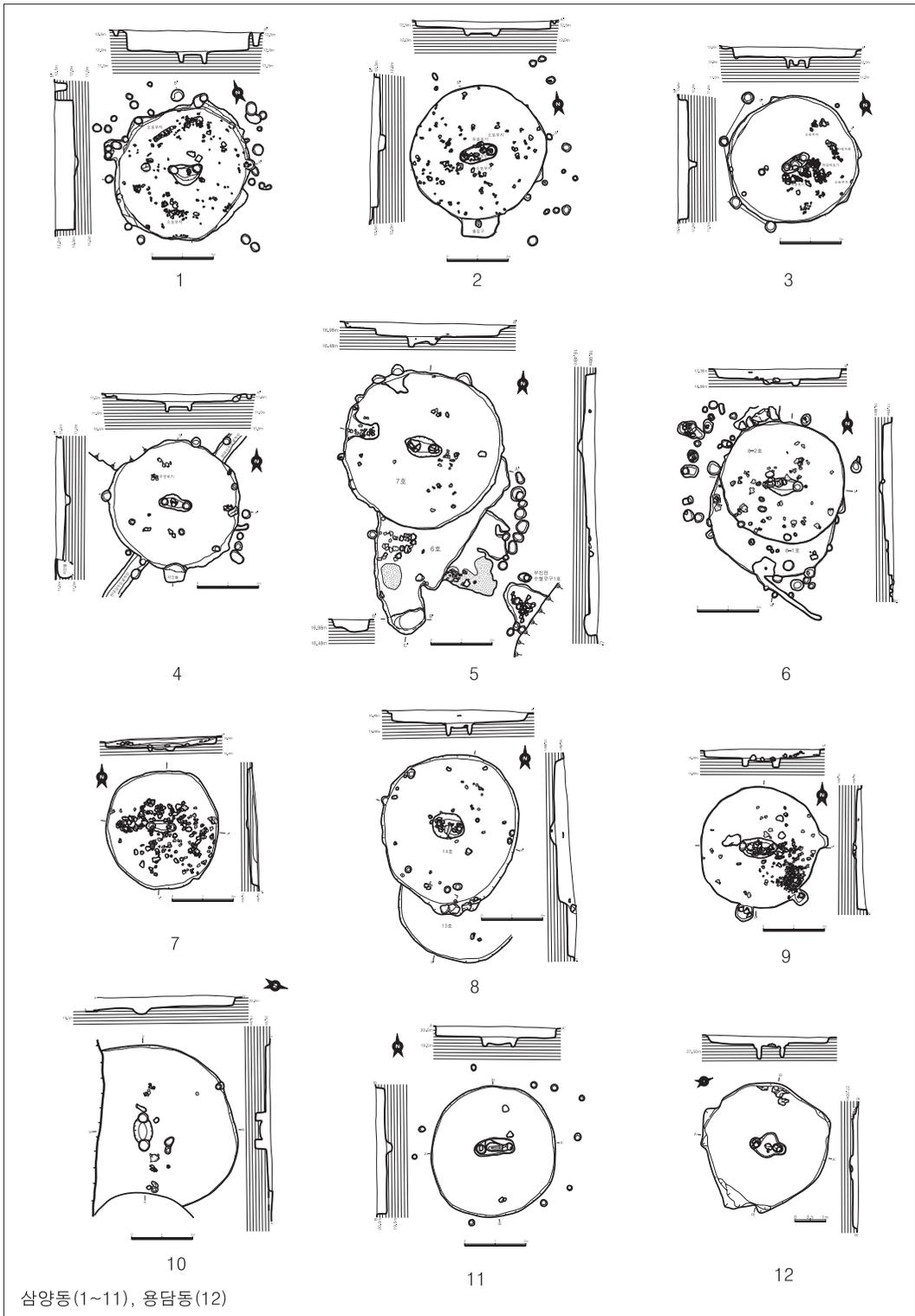
반면 제주의 북서부 해안과 가장 지근거리에 해당하는 영산강유역과 탐진강일대의 조사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영산강유역의 경우 송국리형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61.3%)이 방형(38.7%) 보다 우세하게 확인된다(유향미 2006, 21쪽). 하지만 탐진강유역은 방형(53.7%)이 원형(46.3%)에 비해 다소 우세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이종철 2008, 29쪽). 즉 영산강유역은 원형계가, 탐진강유역은 방형계가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산강유역의 송국리형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원형이든 방형이든 양단주혈의 배치 형태가 A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유향미 2006, 22~23쪽). 하지만 일부 방형계로 분류된 주거지 중에서 벽선이 곡선화된 타원형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영산강유역의 송국리형주거지는 원형계+A형이 대부분임을 알 수가 있다(김규정 2006, 43쪽).

한편 탐진강유역은 대부분의 주거지가 A형을 채택하고 있어 평면형태와 달리 내부구조는 영산강유역과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이종철 2008, 37~38쪽). 따라서 영산강~탐진강유역에 이르는 전남 남해안지역의 송국리형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원형이 다수를 차지하며 또한 타원형구덩이 내부 양단에 주혈이 각각 배치되는 A형식이 주로 축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점은 금강유역에서 확인되는 송국리형주거지가 대부분 원형계의 A형인 점을 보면 결국 금강→영산강→탐진강유역으로의 확산과정을 상정해 볼 수 있다(김승옥, 2006a).

환언하자면 서해안 및 금강유역의 송국리문화가 서해안을 따라 영산강유역으로 확산되었으며 또한 탐진강과 보성강유역으로 재확산되는 과정에서 제주지역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제주지역에서 송국리형주거지의 초기모습을 보여주는 서북부지역의 삼양동과 용담동 일대에서 확인된 주거지 중 A형이 75.8%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를 반증해 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제주지역에 송국리문화의 초기 유입시점은 영산강과 탐진강 유역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 송국리문화가 번성했던 기원전 7~5세기대의 어느 시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탐진강유역에서 이른 단계의 송국리형주거지와 지석묘에서 내만구연심발과 직립구연토기가 출토되는 점은 제주지역의 초기 송국리형주거지의 유물출토 양상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주목된다(이종철 2008, 48~51쪽).

17) 일본의 경우 최고의 환호유적으로 알려진 에즈지(江辻)유적의 경우 한반도 동남지역의 송국리계(오곡리식 주거지)와 유사성이 간취되는데 제주지역과 구분되고 있어 주목된다(안재호 2006b, 102쪽).

18) 호남지역에 비해 금강유역에서 원형+A형의 비율(75%)이 압도적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제주지역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상정해 볼 수도 있다.



삼양동(1~11), 용담동(12)

그림 9. 1단계 주거지(축척 1/200)

한편 송국리형주거지의 형식분류를 통해 영산강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 서부지역과 섬진강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지역과의 지역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이종철 2000; 김한식 2001; 김한상 2002; 김승옥 2006; 김규정 2006). 특히 남강유역에서 확인된 주거지의 선후관계를 살펴보면 평면형태는 장방형→방형→말각방형→원형으로의 변화상이 간취되고 있으며 C형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면서 지역색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말각방형의 경우에는 A형이 B형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배덕환 2005, 78~79쪽).

양 지역간 주거형태의 지역색은 유병식석검의 분포상태를 통해서도 인식할 수 있다. 즉 영산강·보성강·섬진강유역을 포함한 전남지역의 경우 I 기에는 유병식석검이 존재하지 않지만 II 기가 되면서 유병식석검이 출현하는데 낙동강 유역권에서 기술이 유입되어 왔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박미현 2008, 87~91쪽). 특히 보성강과 남해안지역에서는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으나 영산강유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따라서 영산강유역과 낙동강유역간의 이러한 차이는 양 지역집단의 상호교류가 부족했음을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할 것이다. 지역간 교류의 단절은 곧 주거형태의 지역적인 차이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토유물의 조합에서도 차별화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배경속에서 제주지역은 결국 영산강~탐진강유역의 남해안 서부지역을 통해 송국리형주거지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최근 송국리형 주거유형의 정보전달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전남서부와 경남 서부지역간의 상이성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端野 晋平 2010, 139쪽).

상술한 바와 같이 제주지역의 송국리문화는 호서지역→호남지역→제주지역으로의 확산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 이러한 송국리문화의 초기 유입시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대략 기원전 7~5세기경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동시기에는 송국리문화의 전반적인 수용보다는 단편적인 부분에서 유입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송국리문화의 중심지역인 경우에도 토기조합에서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나 주거지의 평면형태가 차이를 보이는 점은 결국 주거형태와 토기의 채택에 있어 달리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이홍중 2006a, 119쪽).

일본의 경우에도 야요이시대 개시단계에 송국리문화 관련유적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데 특히 구주지방을 포함하여 긴끼지방(近畿地方) 일대에서 송국리형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일본에서 출토되는 송국리형토기는 우크마츠하라(宇久松原)유적의 경우 유우스식토기(夜白式土器) 단계 보다 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¹⁹⁾.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승문만기(繩文晩期)의 유우스식 단계부터 이다즈케(板付)II식의 古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片岡宏二 1999, 64~78쪽).

일본지역에 송국리형주거지가 출현하는 시점은 기원전 4세기 전반대에 서북구주로 이동하기

19) 우크마츠하라유적의 토기는 양 지역간의 교역에 의해 직접 가져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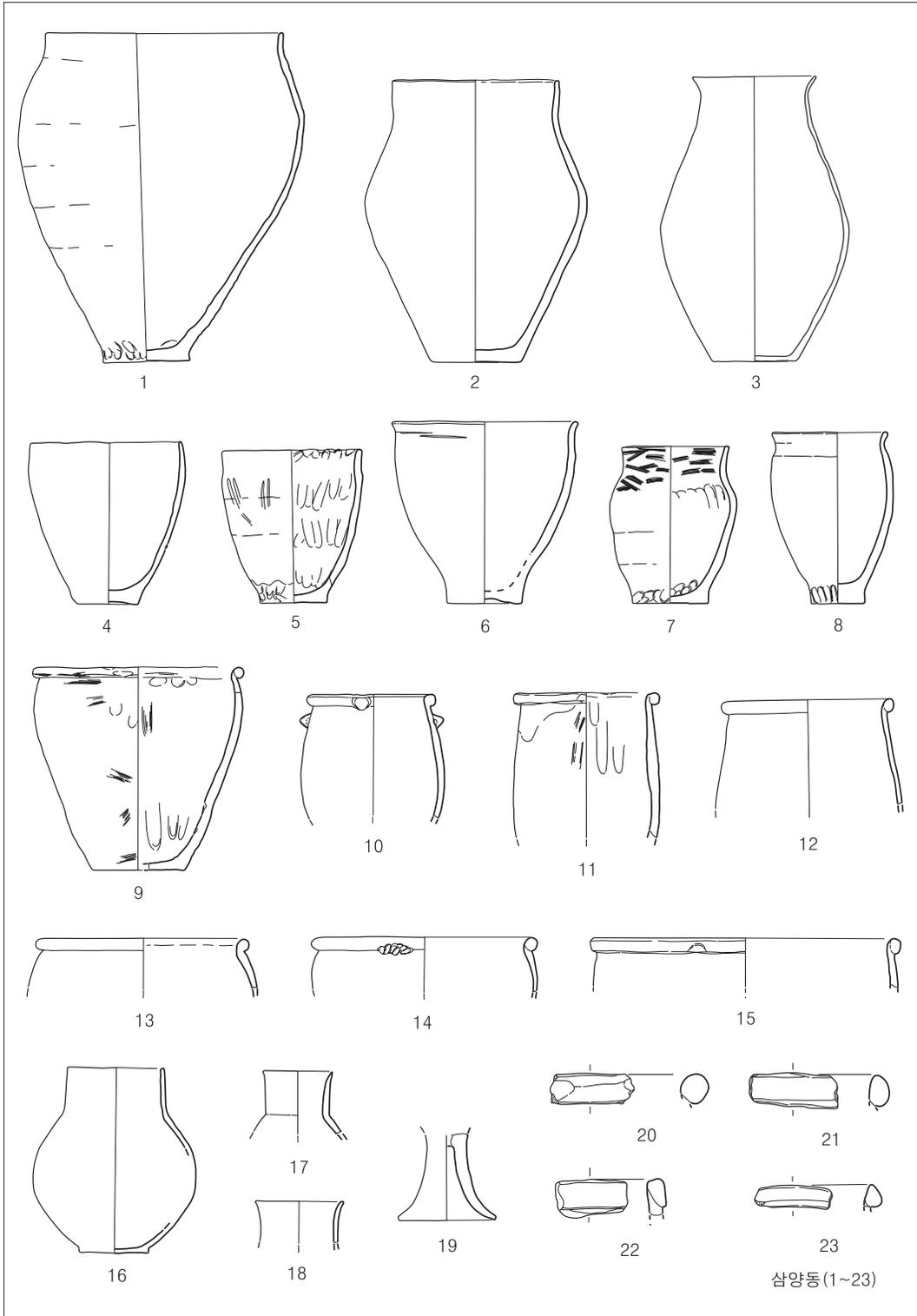


그림 10. 1단계 출토유물(축척 1/10[1~3], 1/8[4~8], 1/6[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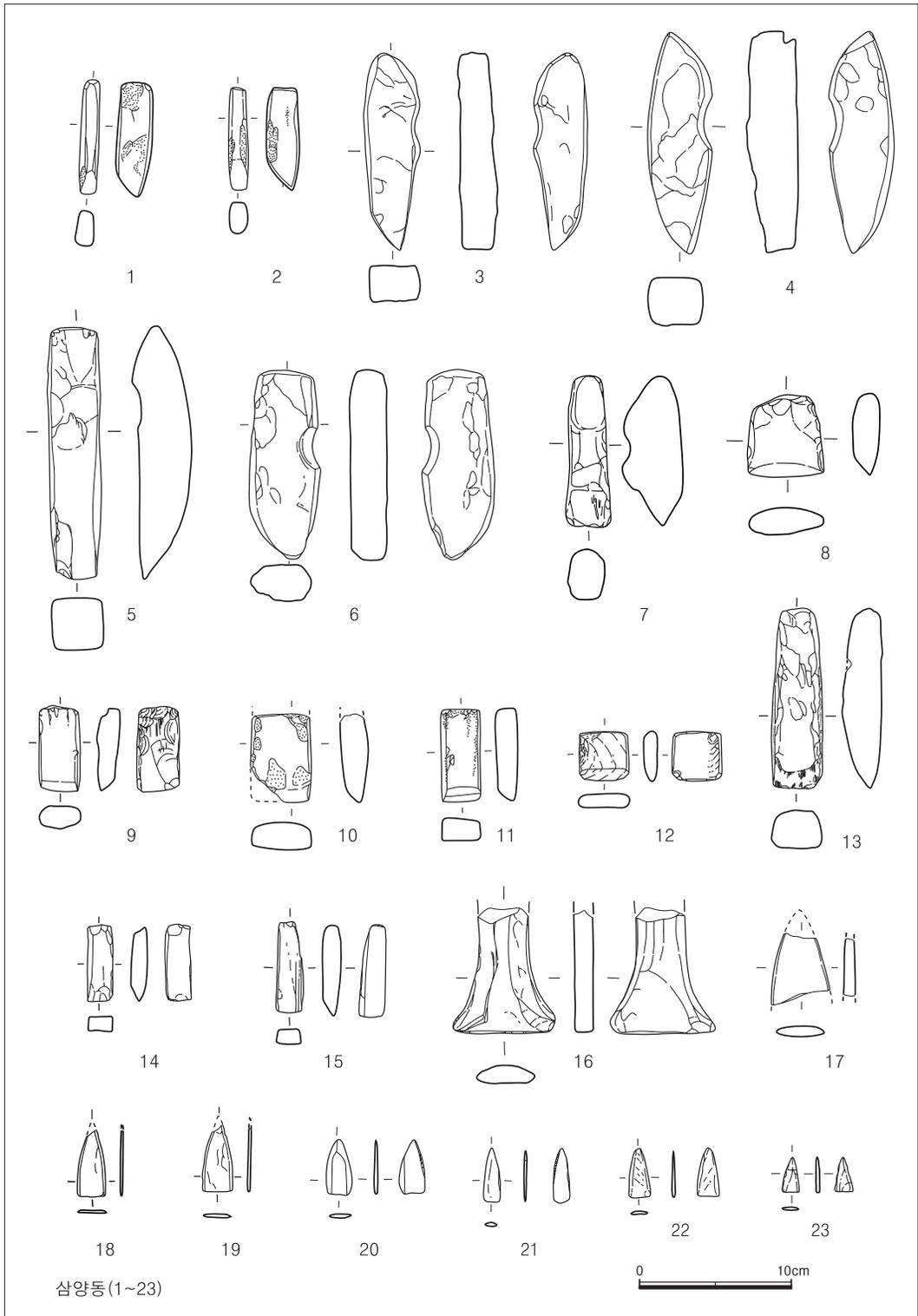


그림 11. 1단계 출토유물(축척 1/4)

시작하면서 부터이다²⁰⁾. 특히 기원전 2세기경에는 한반도에서 송국리형주거 형태가 소멸 하지만 서북구주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존속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이홍중 1992, 142~149쪽).

반면 일본지역의 송국리형주거지가 한반도 중기후반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안재호 2001, 376~386쪽). 또한 일본열도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현하는 시점은 전기 후반(板付Ⅱ式 新段階)이므로 기원전 3세기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²¹⁾. 따라서 제주지역의 원형점토대토기 문화의 유입도 이와 동일한 어느 시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방문배 2004, 99쪽).

일본열도의 긴끼지방(和歌山縣 川邊遺蹟)에서는 송국리형주거지가 원형점토대토기 이후 시기인 야요이시대 중기 중엽까지 지속되고 있다(庄田 慎矢 2007, 30~31쪽). 따라서 송국리형주거지의 존속 시기가 상당기간 길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외래의 물질문화를 수용하고 재지화하여 지속 되는 시간은 지역에 따라 혹은 재지의 주민집단에 따라 그 존속시기를 달리했음을 알 수가 있다.

점토대토기 집단은 요녕지방에서 한반도에 이주한 결과로 보는 견해²²⁾가 지배적이다(이청규 2000; 박순발 2004; 이성재 2007; 박진일 2007). 또한 요녕지역에 점토대토기가 성행하는 시기는 기원전 6세기 이전에 해당하며 한반도에 점토대토기가 유입된 시점은 이를 상회하지 못하는 것²³⁾으로 인식되고 있다(이성재 2007; 中村大介 2008). 따라서 남한지역에서 원형점토대토기의 성행 단계는 기원전 5~3세기경으로 편년되고 있다(이숙임 2003, 2007; 이화중 2004, 2006; 박진일 2007a, 2007b; 송종렬 2008). 반면 일본지역 점토대토기의 확산과정을 보면 이다즈케Ⅱb식(彌生時代 前期後葉)부터 보이는데 이 시기에는 송국리식토기가 수반되고 있다(中村大介 2008).

한편 호남지역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에는 적석목곽묘, 토광묘, 주구묘 등이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데 이 단계는 기원전 4~3세기 전반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흑도장경호의 경우 경부가 긴 것에서 짧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이동희 2002, 40~46쪽). 반면에 제주 지역에서도 원형점토대토기가 부장된 토광묘가 확인되는 점을 보면 호남지역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다(국립제주박물관 2008). 특히 삼양동유적 출토 흑도장경호의 경우 경부가 긴편으로 이동희 분류의 I 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원형점토대토기도 동체 상부가 팽창된 형태에서 장동화되는 형태가 일부 확인되는 점²⁴⁾을 고려할 때 삼양동 단계의 점토대토기 유입시점은 대략 기원전 4~3세기경에 위치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 이홍중(2006b, 252~254쪽)은 일본의 新 AMS연대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지역 송국리문화의 유입시점을 8세기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21) 최근 일본열도에 점토대토기가 유입되는(板付Ⅱ式 古段階) 시기에 대해 기원전 4세기 말을 상한으로 추정하는 논의가 있어 다소 상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박진일 2007a, 164쪽).

22) 노혁진(2001, 114~115쪽; 2009, 156쪽)에 따르면 점토대토기집단은 이동성이 강하고 정착농경을 배제하며 세계 경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보다 영토 확장 그 자체를 목적으로 정복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추론한 바 있다.

23) 中村大介(2008, 75쪽)는 한반도에서 늦어도 기원전 5세기 후반부터 원형점토대토기가 나타나고 기원전 3세기 후엽경까지는 송국리식토기와 공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4) 최근 원형점토대토기가 장동화되는 단계를 기원전 4세기 후반~기원전 3세기 말경으로 추정하고 있어 참고된다(송종렬 2008, 60쪽).

따라서 제주지역에 송국리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대규모취락의 조성은 결국 호남지역에서 송국리문화가 소멸하는 기원전 4세기대 이후 본격적으로 축조되고 성행하며 또한 기원전 2세기대 이후 제주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⁵⁾. 즉 호남지역에서 송국리문화가 소멸하는 시점에 제주지역에서는 오히려 송국리형주거지를 바탕으로 형성된 대규모취락이 급증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는 전남지역에 송국리유형이 재확산되면서 나타나는 인구결집지의 변동이 발생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황재훈 2009, 50~52쪽).

상술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제주의 송국리문화는 호남지역에서 성행하던 시점에 수용되고 초현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삼양동과 용담동 등지에서 확인되는 송국리형취락은 결국 송국리문화가 유입된 후 초현시점을 지나 적극적인 수용단계에 접어든 취락으로 규정할 수 있다²⁶⁾. 즉 이러한 시간적 흐름을 염두에 두고 고려한다면 결국 본고에서 논의하는 1단계(수용)의 송국리형취락은 송국리문화의 초기 유입단계가 아닌 전반적인 수용 후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되기 직전단계까지의 취락에 해당함을 알 수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용단계의 취락을 살펴보면 주거지는 원형계의 A형이 대부분이고 규모는 직경 4~5m 내외가 일반적이며 면적은 13㎡ 이상과 미만이 각각 절반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28㎡ 이상인 비교적 대형 주거지도 확인된다. 초기의 취락에서는 주거지 상호간 위계성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 단계에는 송국리형주거지와 함께 생산 및 저장과 관련된 다양한 수혈유구가 확인된다. 또한 야외노지, 요지, 구상유구, 굴립주건물지 등이 조성되고 지석묘와 함께 석관묘, 토광묘, 옹관묘 등 다양한 묘제가 확인되고 있다.

수용단계의 취락에서는 재지계의 직립구연토기와 삼양동식토기가 주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 외래계인 원형점토대토기와 흑색마연장경호가 동반 출토된다. 반면 석기류는 양인석부가 잔존하며 편인석부(유구석부, 편평편인석부, 석착), 마제석검(유경식, 일단병식), 마제석촉(일단경촉, 삼각형편평촉), 지석 등의 공구 및 무기류가 출토되며 요석, 연석, 고석 등의 식량처리구도 확인된다. 즉 전 단계에 비해 편인석부가 급증하고 있으며 송국리단계의 유경식석검이 출토되고 있다. 이외에도 삼각형편평석촉이 다수 출토되었는데²⁷⁾ 이러한 석촉은 호서지역과 강원지역의 원형

25) 일본열도의 경우에도 한반도의 송국리문화가 소멸하는 시점부터 활발하게 축조되고 발전하는 점은 제주지역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안재호 2006b, 74쪽)

26) 일본지역에 송국리문화의 파급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간접적인 영향에 의해 개시되었지만 이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파급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홍종 2006b, 254~255쪽). 따라서 삼양동과 같은 대규모취락을 조성하기 직전단계인 소규모의 송국리형취락(고산리유적)이 뚜렷하게 확인될 경우 명확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27) 이숙임(2003; 2007)은 강원지역 점토대토기 문화를 검토하면서 삼각형편평석촉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양동유적에서 출토된 석촉 12점 중에서 평기식의 삼각형편평석촉은 모두 8점이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점토대토기 단계의 형식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호서지역 점토대토기 단계 역시 이러한 석촉이 다수 확인되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점토대토기 단계에 공반 출토예가 많은 점으로 미루어 동시기의 특징으로 여겨진다(노미선 1998; 이숙임 2007; 이화중 2006; 충남대박물관 2008).

V. 송국리문화의 확산과 전환

1. 송국리문화의 확산

제주 서북부지역에 송국리형취락이 수용된 후 점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주 전역으로 확산된다. 특히 삼양동 취락이 소멸되는 시점에 화순리유적을 비롯한 서남부 지역에 대규모 중심취락이 집중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다. 이처럼 서남부지역으로 확산되는 시점은 대략 기원전 2세기에 이 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확산단계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수용단계의 송국리형주거지가 계속해서 축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후기에 접어들면 주거지의 내부구조 등에서 다양한 변화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즉 주거지 내부 중앙부에 설치된 타원형구덩이를 보면 수용단계에는 내부 양단에 주혈이 배치된 A형이 80%대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확산단계의 경우에는 B형과 C형 등 점차 다양성을 보이거나 소멸되는 과정이 확인된다. 또한 그림12)를 참고하면 전단계에 비해 주거지의 규모가 다양화되지만 반면에 전반적으로는 다소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거지의 규모는 직경 3~4m 내외가 일반적인데 특히 면적이 13m² 미만인 경우가 90% 정도로 전 단계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최대 규모의 주거지 면적도 18m² 정도에 불과하고 6m² 미만의 주거지가 존재하는 점은 확산단계의 가장 큰 특징이다.

환언하자면 다수의 주거지를 다양한 기능에 따라 활용하는 생활환경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취락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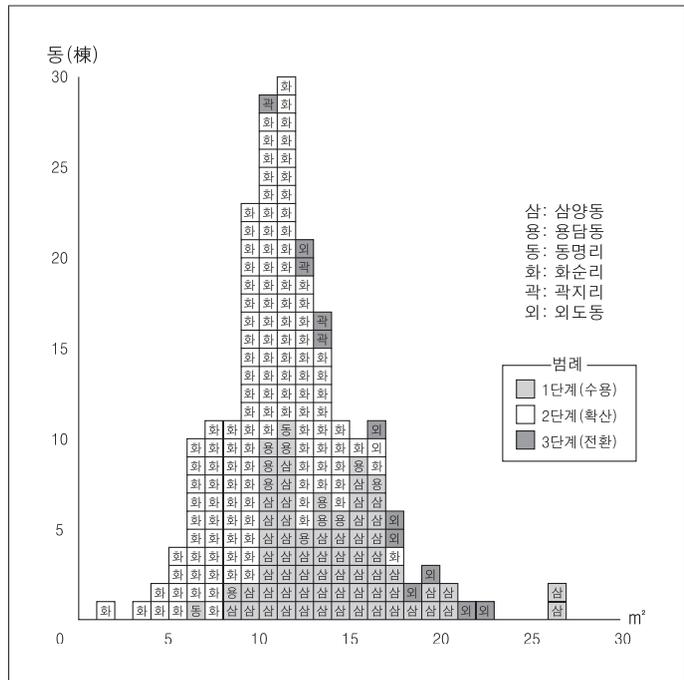


그림 12. 제주지역 송국리형주거지 면적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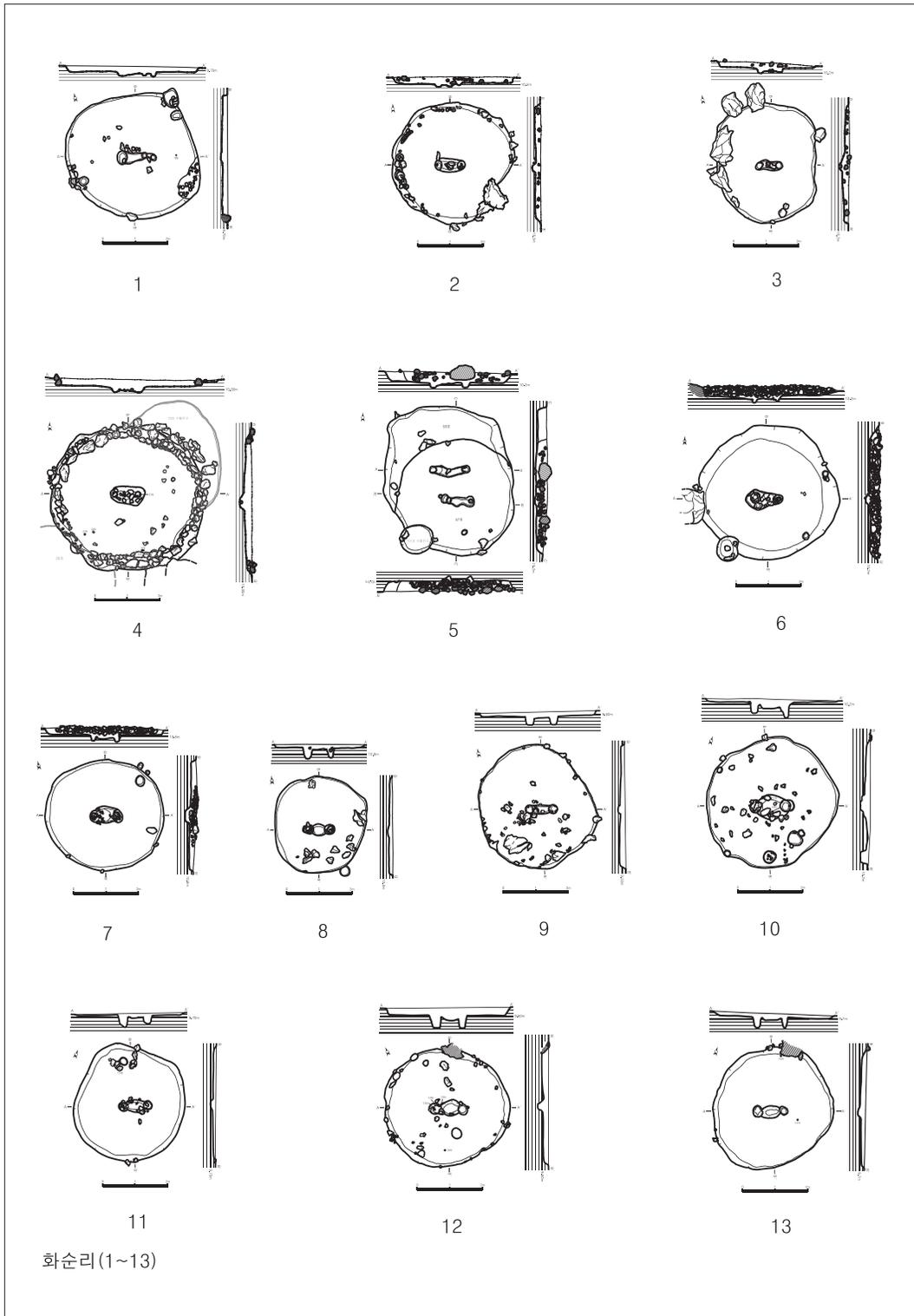


그림 13. 2단계 주거지(축척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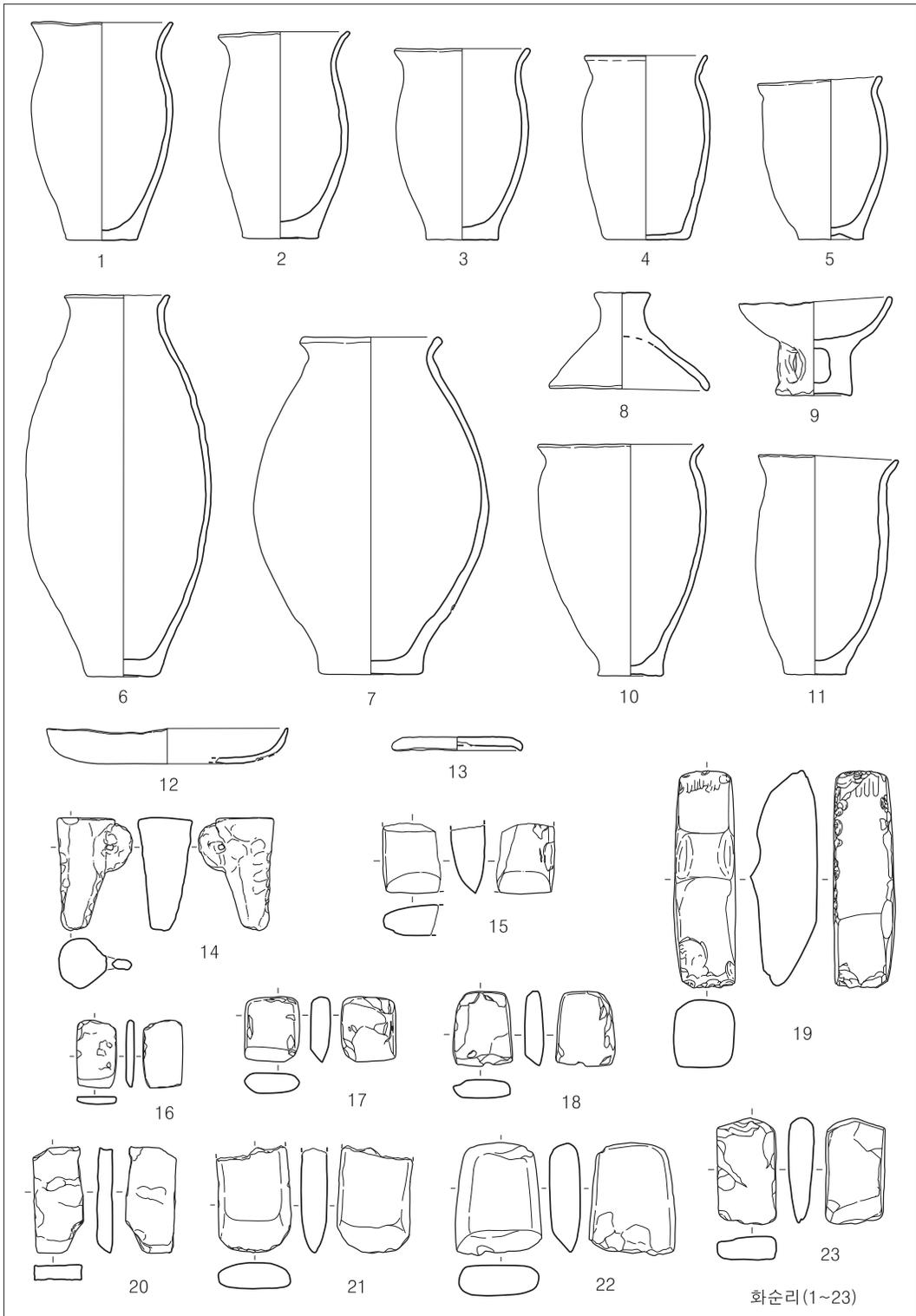


그림 14. 2단계 출토유물(축척 1/8[1~14], 1/4[15~23])

상생활에 있어 주민집단 각각의 세대별 역할에 대한 분업화는 더욱 진전되며 계층분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주거지 벽체에 자연석과 할석을 쌓아 보강한 석벽주거지가 확인되는데 여타 주거지에 비해 입지와 규모면에서 우월성이 인정되며 유물조합에서도 독점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소수의 주거지에서 철기와 옥, 구슬 등 위세품을 비롯한 다양한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전 단계의 취락구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제주문화예술회관 2009).

확산단계의 취락은 대규모 공간을 두고 일정한 입지선택이 이루어진 곳에 지속적으로 주거지가 배치되고 있다. 또한 그 주변으로는 생산과 관련된 각종 수혈유구와 소토유구 등이 배치되는 양상이 뚜렷해진다. 반면에 제의 및 분묘공간, 폐기공간, 저장 및 공동시설 공간, 광장 등 취락내 공간 분할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특히 분묘 공간인 경우 독립적으로 주거구역과 분리되어 조성되고 있다.

한편 확산단계의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토기류는 전단계에 확인되던 재지계의 직립(내만)구연 토기와 외래계의 점토대토기가 소멸한다. 또한 삼양동식토기와 함께 후행하는 외도동식토기는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반형토기, 고배형토기, 심발형토기, 토기뚜껑 등 신기종이 출현한다.

반면에 석기류는 요석, 고석, 연석과 같은 식량처리구가 대부분이며 무기류와 공구류는 거의 출토되지 않는다. 따라서 확산단계가 되면 일부 석기를 제외한 대다수가 철기로 대체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특히 이 단계에는 원뿔형토제품, 원판형토제품, 이형토제품, 토제곡옥, 토제 구슬 등 토제품이 다량 출토되고 있는데 제의와 관련된 의례행위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묘제는 수용단계부터 지석묘가 지속적으로 축조되면서 대형 집석묘와 옹관묘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대형집석묘인 경우 방형상의 집석을 조성한 후 그 내부에 매장주체부를 축조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외곽 적석렬에 잇대어 옹관을 매장하는 형태의 묘제가 축조된다. 이러한 묘제는 동시기 최고 수장층의 묘제라고 판단된다.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단독묘와 인접하여 의례행위와 관련된 대형 집석유구가 축조되고 그 주변으로는 이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굴립주건물지가 배치되어 있다. 즉 최고 상위계층의 대형 단독 집석묘와 함께 공공의 의례행위가 이루어졌던 시설이 동일한 곳에 배치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전 단계에 비해 확산단계에는 최고 상위계층의 지위가 상당부분 상향되어 계층분화가 심화되었으며 또한 공공의례와 관련된 행위의 신성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2. 송국리문화의 전환

앞서 살펴보았듯이 송국리형취락은 제주지역에 유입된 후 확산단계에 접어들면서 화순리유적

을 비롯한 서남부지역으로 중심지역이 이동하게 된다. 송국리문화가 제주지역에 유입된 후 재지화 과정을 거치면서 주거지의 규모는 다소 축소되어지고 내부 구조의 변화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화순리 단계 이후 다양하게 변화하는 타원형구덩이는 후행하는 괘지리와 외도동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소멸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한 채 다양한 형태로 변화한다.

먼저 괘지리유적의 예를 보면 중앙부에 타원형구덩이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혈은 조성되어 있지 않고 대신에 초석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또한 타원형구덩이만 잔존하거나 아니면 양단 주혈이 무질서하게 배치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도동식주거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주거지의 중앙부에 타원형 혹은 원형상의 수혈을 굴착하고 양단으로는 각각 초석을 배치하거나 혹은 주거지 상면에 그대로 기둥을 세우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상술한 주거지의 변화과정을 통해 송국리형주거지가 재지화되고 보다 발전된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제주문화예술재단 2005, 마한문화연구원 2007).

송국리형주거지는 외도동식토기 단일화 단계에 접어들어도 일부 잔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원형평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내부구조는 다양하게 변화한다. 특히 복잡한 내부구조를 갖춘 외도동식주거지로 발전하면서 전형적인 송국리형주거지는 대부분 소멸하게 된다. 하지만 원형평면과 양단 중심 기둥축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전단계의 송국리형주거지를 지속적으로 승계하는 취락이 조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도동식주거지(그림 15-4·5)는 내부 중앙부에 수혈을 배치하고 벽구(壁溝)가 설치된 벽체로 구를 연결하여 축조한 형태이다. 특히 각 벽구는 물론이고 벽구와 연결되는 구시설의 내부에는 양쪽에 토기편을 세우고 내부에 자갈한 자갈돌을 채운 후 다시 토기를 얹고 그 위에 점토를 덮어 마무리한 토적(土積)시설이 확인된다²⁸⁾. 현재 한반도에서 확인된 예가 없어 정확한 성격을 알 수가 없지만 주거지 내부의 집·배수(김재호 2006, 54~58쪽; 신상효 2007, 49~50쪽) 혹은 취사(度辺誠 1982, 31쪽)와 관련된 노지시설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외도동식주거지는 기존의 송국리형주거지를 바탕으로 일층 발전된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내부구조의 복잡한 발전양상은 다양한 기능이 이루어졌음을 추정케 한다. 주거지의 규모는 직경 4~5m 내외로 전단계에 비해 규모가 다소 확대되고 있으며 면적은 대체로 14 m² 이상에 해당한다.

한편 외도동유적을 살펴보면 직경 1m 내외인 3~4개의 수혈이 군집을 형성하면서 일정하게 배치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또한 이전단계에 확인되지 않았던 우물이 새롭게 축조되기 시작한다. 우물은 직경 2m 이상되는 대형우물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단독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1m 내외인

28) 외도동식주거지는 아직까지 한반도에서 확인된 예가 없다. 다만 일본 宮崎縣 堂地東遺蹟에서 확인된 원형다구획주거지(円形多區劃住居址)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石野博信 1995, 228~230쪽). 또한 최근 전남 나주 운곡동유적에서 방형주거지 내부의 벽구시설과 배수로 상부에 토기편을 이용하여 복개된 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 축조방식에서는 외도동식주거지의 토적시설과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정성목 2006, 201~203쪽)

소형우물은 2기가 세트를 이루며 특정 공간에 배치되고 있다.

이외에도 취락내부에는 소토유구, 매납유구, 석축시설 등이 축조되고 있다. 특히 석축시설은 단순한 경계를 의미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취락의 영역을 과시하는 의미로서 수장층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할 것이다. 즉 전단계에 조영되었던 대형의 단독 집석묘를 축조했던 상위계층에 의해 계획된 취락이 조성되고 취락과 외부를 차단하는 경계석축의 축조는 지배층의 권위와 함께 취락구성원의 노동력에 대한 체계모니를 상징한다고 할 것이다²⁹⁾.

송국리형주거지의 소멸과 함께 외도동식주거지로의 전환단계에는 외도동유적과 같이 공간경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계획된 취락이 출현하게 된다. 따라서 경계석축을 축조하여 취락의 영역을 표시하고 그 내부에 주거, 생산, 제의, 저장을 위한 시설을 각각 조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특정 지배계층에 의한 취락조성과 함께 생산관련 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가동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계획된 취락을 조성·관리하기 위한 상위계층의 출현은 이전 단계의 계층간 분화를 더욱 고조시킴과 동시에 상위계층의 급격한 성장은 지역 정치체의 확립을 가속화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시기 지배층의 권위적 상징성을 보여주는 유력개인묘역에 철기를 다량 매납하는 용담동 철기부장묘의 등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멸단계에는 외도동식주거지의 축조와 더불어 노동력의 결집을 상징하는 최고조로 발달된 판석조의 위석식 지석묘가 축조된다. 또한 급성장한 상위계층의 활발한 대외교류를 통해 철기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외래계 선진문물이 다량으로 유입되고 재분배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한편 소멸단계의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토기류는 삼양동식토기가 소멸하고 외도동식토기로 전환된다. 또한 말기에는 광지리식토기의 조형으로 추정되는 토기 역시 확인된다. 특히 마한계의 연결 원저단경호가 동반 출토되는데 전남지방의 편년을 참고하면 대략 3세기 중반~4세기 전반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한옥민 2000, 18~20쪽; 윤희남 2003, 22쪽).

소멸단계의 초반에는 연결계의 토기가 주로 출토되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경질계 토기의 비중이 높아진다. 반면 이 단계의 석기류는 일부 식량처리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철기로 대체된다. 특히 외도동유적에서 철소재가 다량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수입된 철소재의 재가공을 위한 생산행위도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29) 환호시설의 축조는 주변 취락민들이 일시에 동원되었지만 보수, 유지는 제의권을 관장하고 있는 거점취락에서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송만영 2006b, 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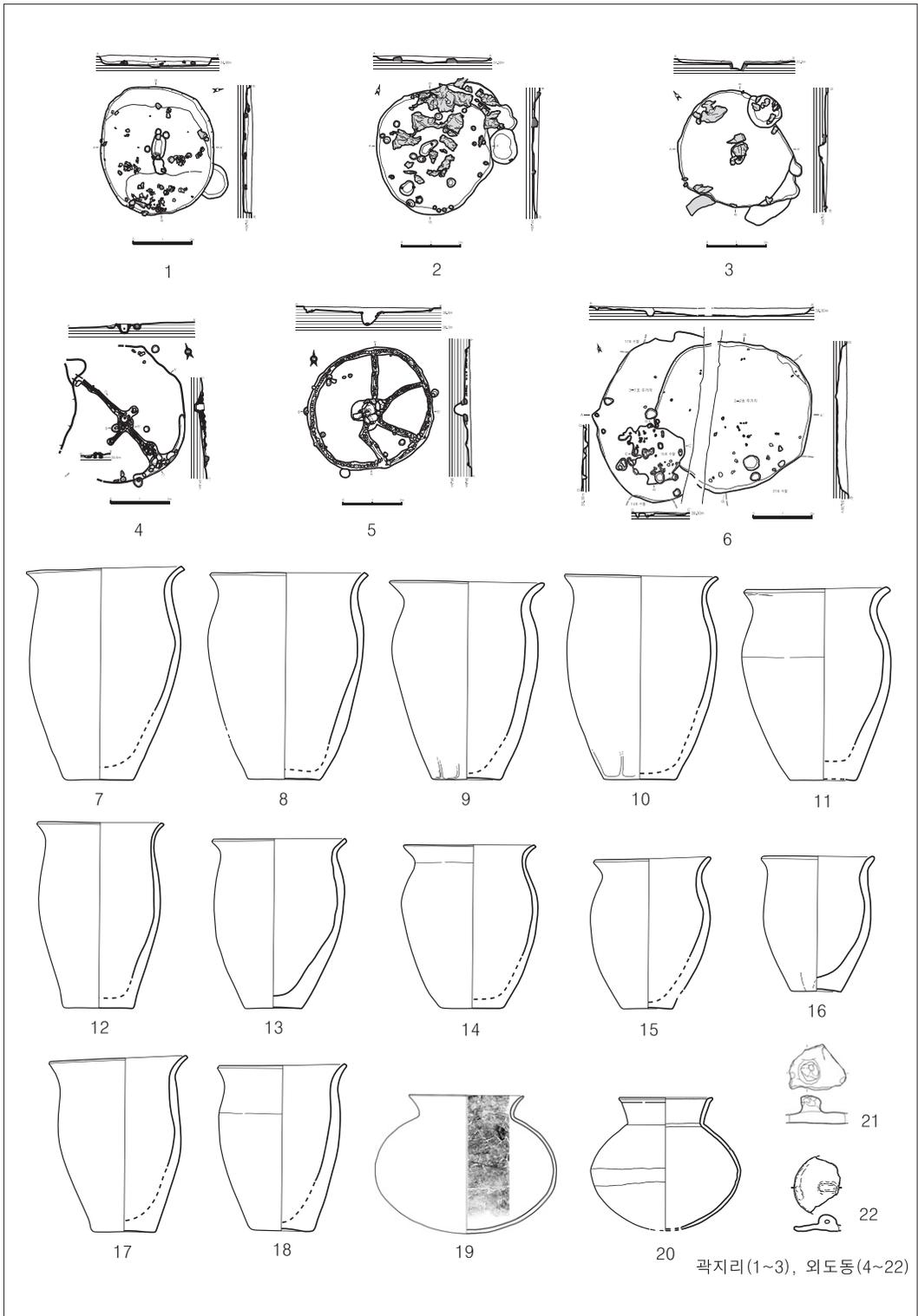


그림 15. 3단계 주거지(축척 1/200)와 출토유물(축척 1/10)

VI. 맺음말

제주지역 송국리문화는 금강유역에서 호남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이러한 문화양상이 최초로 유입되는 시점에는 주거유형 보다는 토기와 석기 등 선택적인 유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 전반적인 수용과 확산 시기는 대략 기원전 4~2세기경에 해당한다.

송국리문화가 수용·전개되는 과정은 대략 3단계로 구분되어 진다. 먼저 1단계에는 A형의 주거지가 주로 축조되고 있으며 지석묘를 비롯한 석관묘, 토광묘, 옹관묘 등이 조영된다. 토기는 재지계의 직립구연토기와 삼양동식토기가 확인되며 외래계의 점토대토기와 흑색마연장경호 등이 동반 출토된다. 반면 석기는 편인석부가 급증하고 일단병식석검과 편평삼각형석촉이 출토되고 있다.

2단계는 이전 단계에 비해 주거지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주거형태는 A형이 지속적으로 축조되면서 B형과 C형 등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게 된다. 토기는 직립구연토기와 함께 점토대토기가 소멸하며 반면 삼양동식토기는 일부 잔존하고 있으나 대부분 외도동식토기로 전환되는 단계이다. 이외에도 반형토기, 고배형토기, 토기 개, 심발형토기 등 신기종이 출현하며 이형토제품 등의 레와 관련된 유물이 급증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석기는 식량처리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소멸하면서 철기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2단계에는 최고 계층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대형집석묘가 등장하고 있어 계층분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3단계는 송국리형주거지가 일부 잔존하고 있으나 외도동식주거지로 전환되면서 소멸되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기는 이전 단계의 기종이 대부분 소멸하고 외도동식토기로 단일화되고 있으며 원저단경호와 같은 마한계 토기가 동반 출토되고 있다. 석기는 지석과 식량처리구를 제외하고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데 반해 철제품은 급증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청동기시대 후기의 송국리문화는 제주지역에 선택적으로 유입된 후 전반적인 수용과 확산과정을 거쳐 소멸되고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초기 유입단계에 해당하는 주거형태가 명확하지 않으며 전환기에 해당하는 외도동식주거지에 대한 자료 역시 부족한 편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개별 취락의 구조 및 공간분석, 취락간 상호체계 분석, 계층화에 대한 분석, 대내외 지역집단과의 교류체계에 대한 분석 등 많은 점에서 부족함을 드러내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주제를 차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高旻廷, 2003, 「南江流域 無文土器文化的 變遷」,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국립제주박물관, 2007a, 『제주세무서 직원사택 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국립제주박물관, 2007b, 『제주 서부소방서 신축부지내 동명리유적 긴급수습조사 보고서』.
- 국립제주박물관, 2007c, 『제주시 삼양2동 2132-1번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국립제주박물관, 2008, 「제주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내유적(가- I 구역)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 김경주, 2001, 「濟州島 赤褐色硬質土器 研究」, 『韓國上古史學報』 35號.
- 金慶柱, 2005, 「耽羅成立期 聚落的 形成과 變遷」, 『湖南考古學報』 22號.
- 金慶柱, 2007, 「三陽洞式土器의 始原에 對한 考察-外反口緣土器를 中心으로-」, 『石心鄭永和教授 停年退任紀念 天馬考古學論叢』.
- 김경주, 2009, 「고고학으로 본 고대 탐라」, 『섬, 흙, 기억의 고리』, 국립제주박물관.
- 金奎正, 2000, 「湖南地方 青銅器時代의 住居址研究」, 木浦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金奎正, 2004, 「湖南地方 粘土帶土器文化 檢討-圓形粘土帶土器를 中心으로-」, 『研究論文集』 第4號.
- 김규경, 2006, 「湖西·湖南地域의 松菊里型 住居址」, 『금강·송국리형 문화의 형성과 발전』, 호남·호서고고학회 합동 학술대회 발표요지.
- 김승욱, 2006a, 「송국리문화의 지역권 설정과 확산과정」, 『금강·송국리형 문화의 형성과 발전』, 호남호서고고학회 합동 학술대회 발표요지.
- 김승욱, 2006b, 「청동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한국고고학보』, 60집.
- 김오진, 2009, 「조선시대 제주도의 기후와 그에 대한 주민의 대응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장석, 2003, 「충청지역 송국리유형 형성과정」, 『한국고고학보』 51, 한국고고학회.
- 김장석, 2008, 「송국리단계 저장시설의 사회경제적 의미」, 『한국고고학보』 67.
- 金載昊, 2006, 「韓國 青銅器時代 住居構造의 復原」, 『嶺南考古學』 28號.
- 金宗瑞·鄭麟趾·李先齊, 1454, 「世家」 46권, 『고려사(高麗史)』.
- 金漢相, 2002, 「松菊里文化의 發生과 展開-中西部 海岸地域과 南部 內陸地域의 比較檢討-」,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金漢植, 2001, 「우리나라 南部地域의 松菊里型住居址 研究」,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나건주, 2009, 「송국리유형 형성과정에 대한 검토: 경기·충청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고고학』 8-1호, 서울경기고고학회.
- 盧美善, 1998, 「錦江流域 粘土帶土器의 研究」, 全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盧熾眞, 2001, 「粘土帶土器文化의 社會性格에 對한 一考察-住居遺蹟의 特色을 中心으로-」, 『한국고고학보』 45집.
- 노혁진, 2009, 「남한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점토대토기문화를 중심으로」, 『동북아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학연문화사.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1976, 『정밀도양도-제주도』.
- 端野 晋平, 2010, 「수작농경 개시 전후 한일교류론의 諸문제-송국리문화와 야요이문화의 형성-」, 『嶺南考古學』 52.
- 度 辺 誠, 1982, 「採集對象植物의 地域性」, 『季刊 考古學』, 創刊號, 雄山閣.
- 마한문화연구원, 2007, 『농산물집하장 및 저온저장시설 신축부지내 발굴조사 보고서』.
- 마한문화연구원, 2007, 『응당2동 2704-15번지 단독주택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朴美賢, 2008, 「有柄式 磨製石劍의 展開와 地域性 研究」,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박순발, 2004, 「요녕 점토대토기문화의 한반도 정착과정」, 『금강고고』 창간호, 충청문화재단연구원.
- 박원배, 2006, 「제주도 용천수의 이용과 보존관리 방안」, 『제주발전연구』 제10호, 제주발전연구원.
- 박진일, 2007a, 「粘土帶土器로 바라본 初期鐵器·弥生時代 曆年代考」, 『한일문화교류, 한반도와 일본 규슈』, 국립중앙박물관.
- 박진일, 2007b, 「점토대토기, 그리고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 『한국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 한국청동기학회

제1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 방문배, 2004, 「제주지역 출토 점토대토기에 대하여-유입과정 및 시기를 중심으로-」, 『濟州文化財研究』.
- 배덕환,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주거와 마을」, 『영남의 청동기시대 문화』, 제14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자료.
- 裴眞辰, 2001, 「柱狀片刃石斧의 變化와 劃期-有溝石斧의 發生과 無文土器時代 中期 社會의 性格-」, 『韓國考古學報』 44집, 한국고고학회.
- 서길덕, 2006, 「원형점토띠토기의 변천과정 연구-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25집, 한국고대사학회.
- 石野博信, 1995, 『古代住居のはなし』, 吉川弘文館.
- 孫峻鎬, 2006, 『韓半島 青銅器時代 磨製石器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孫峻鎬, 2008, 「石器 組成比를 통해 본 青銅器時代 生計와 社會經濟」, 『韓國青銅器學報』 第三號.
- 송만영, 2006a, 「湖南地方 青銅器時代 研究現況과 松菊里類型 形成의 諸問題」, 『崇實史學』 19.
- 송만영, 2006b, 「남한지방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의 변화와 계층화」,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
- 宋宗烈, 2008, 「錦江流域 圓形粘土帶土器文化 研究」, 全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신상효, 2007, 『한국 서남부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安在皓, 1992, 「松菊里類型의 檢討」, 『嶺南考古學』 11, 嶺南考古學會.
- 安在皓,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34, 韓國考古學會.
- 안재호, 2001, 「無文土器時代의 對外交流」, 『港都釜山』 第17號, 부산광역시.
- 安在皓, 2006a,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安在皓, 2006b, 「日本 弥生初期 農耕聚落의 展開」, 『嶺南考古學』 39號.
- 安在皓, 2009, 「南韓 青銅器時代 研究의 成果와 課題」, 『동북아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학연문화사.
- 오연숙, 2004, 「제주도 신석기시대 유적과 유물」, 『제주도 신석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한국신석기연구회 학술세미나 발표요지.
- 劉香美, 2006, 「榮山江流域 松菊里型住居址의 樣相」, 『研究論文集』 第6號, 湖南文化財研究院.
- 윤효남, 2003, 「전남지방의 3·4세기 분구묘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李東熙, 2002, 「湖南地方 粘土帶土器文化期の 墓制와 地域性」, 『古文化』 第60輯.
- 李成載, 2007, 「중부동북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과정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李姝任, 2003, 「江原地域 粘土帶土器文化 研究」, 翰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이숙임, 2007, 「강원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 고찰」, 『고문화』 69집.
- 이영덕, 2004,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 신석기토기의 접촉과 전개양상」, 『제주도 신석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한국신석기연구회 학술세미나 발표요지.
- 李宗哲, 2000, 「南韓地域 松菊里型 住居址에 대한 一考察」, 全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이종철, 2008, 「담진강유역 송국리형 주거문화」, 『담진강유역의 고고학』, 제16회 호남고고학회 발표요지.
- 李眞眩, 2004, 「중부지역 역삼동 유형과 송국리 유형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역삼동유형의 하한에 주목하여-」, 『韓國考古學報』 54, 韓國考古學會.
- 李清圭, 1995, 『濟州島 考古學研究』, 學研文化社.
- 이청규, 2000, 「요녕 본계현 상보촌 출토 동검과 토기에 대하여」, 『고고역사학지』 16.
- 이형원, 2009,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서경문화사.
- 이홍중, 1992, 「송국리식 토기문화의 등장과 전개」, 『선사와 고대』 4, 한국고대사학회.
- 李弘鍾, 1996, 『청동기시대 토기와 주거』, 서경문화사.
- 이홍중, 2006a, 「송국리문화의 전개과정과 실연대」, 『금강 : 송국리형 문화의 형성과 발전』, 호남·호서고고학회 합동 학술대회 발표요지.
- 이홍중, 2006b, 「무문토기와 야요이토기의 실연대」, 『한국고고학보』 60집.

- 李和種, 2004, 「中部地方 粘土帶土器文化 研究」, 漢陽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이화중, 2006, 「강원지역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특징과 편년」, 『강원고고학보』 제7·8합집.
- 庄田 愼矢, 2006, 「송국리문화 집현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7차 세미나 자료, 한국고고환경연구소.
- 庄田 愼矢, 2007, 「南韓 青銅器時代의 生産活動과 社會」,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성목, 2006, 「나주 운곡동유적」, 『금강:송국리형 문화의 형성과 발전』, 호남·호서고고학회 합동 학술대회 발표요지.
- 제주대학교박물관, 1986, 『제주도유적』.
- 제주대학교박물관, 1989, 『용담동고분』.
- 제주대학교박물관, 1990, 『상모리유적』.
- 제주대학교박물관, 2001, 『제주 삼양동유적-II·III지구』.
- 제주대학교박물관, 2002, 『제주 삼양동유적-I·V지구』.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5, 『김녕리 켜내기동굴 유적』.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4, 『용담동 용문로유적』.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5, 『제주시 외도동유적』.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a,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제주관덕정』.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b, 『성산~표선간 국도 12호선 확포장 구간내 발굴조사 보고서』.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c, 『용담동 먹들로유적』.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d, 『제주 동명리유적』.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e, 『제주 하모리유적』.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제주 외도동유적II』.
- 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제주 화순리유적』.
-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 「제주 신창~대정간 도로건설공사구간내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7, 『제주 동명리유적II』.
- 趙現鐘, 2008, 「韓國 初期 稻作文化 研究」, 全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中村大介, 2008, 「青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의 編年과 年代」, 『한국고고학보』 68집.
- 충남대학교박물관, 2007, 『호서지역의 청동기문화』.
- 片岡宏二, 1999, 『弥生時代 渡來人と土器·青銅器』, 雄山閣出版.
- 平井 勝, 1992, 『弥生時代の石器』.
- 한옥민, 2000, 『전남지방 토광묘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재훈, 2009, 「전남지역 선송국리~송국리단계의 인구분포 변동」, 『호서고고학보』 제20호, 호서고고학회.
- 後藤 直, 2006, 『朝鮮半島 初期農耕社會の研究』, 同成社.

A Study on the Pattern of the Acceptance and Development of Songgukri-type Culture on Jeju Island

Kyoung-ju Kim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pattern of the acceptance and development of Songgukri-type culture on Jeju island. It is presumed that Songgukri-type culture was introduced into Jeju island in the process of its diffusion from Gumkang river region to Honam region. Based on my research, the inflow of its culture into Jeju is classified as three major stages.

In the first phase, which I call “Acceptance stage”, Songgukri A typed dwellings were mainly constructed. In the case of artifacts, roll-rimmed pottery and black burnished long-neck pot which are the imported pottery from the mainland have been unearthed together with erect-mouth pottery and Samyangdong typed pottery which are indigenous, and flsttenedhand-axe, stonedagger-withhilt, triangle-shaped flat stone arrowhead have been excavated. The first phase has been dated between 4th century and 2nd century BC.

In the second phase, which I name “Diffusion stage”, the structure of dwellings were slightly downscaled. While Songgukri-A typed dwellings were continuously built, Songgukri B and C were newly appeared. Erect-mouth pottery became extinct in this phase, and while Samyangdong type pottery were still made in a small scale, most of pottery form were changed to Oedodong type. Furthermore, new type of pottery such as mounted dish pottery, basin pottery, and pottery lid were emerged. Judging from the fact that all stone tools excavated in the site were only used to prepare food, it is thought that in this stage ironware was used for other means. The second phase has been dated between 1st century BC and 2nd century AD.

In the third phase, which I call “Change stage”, Songgukri-type dwellings were partly remained, but most form of dwellings were turned to Oedodong type. Based on this fact, I think that Songgukri-type culture in this phase were at extinction stage. The previous styles of pottery were mostly disappeared, and they were simplified into Oedodong typed pottery. Mahan typed potteries were also partly unearthed together. Other stoneware except tools for foodstuff was not discovered like the second phase, and the use of ironware was rapidly increased. The third phase has been dated between 3rd century and 4th century AD.

● **Keywords**

Songgukri-type culture, Songgukri-type dwelling, Oedodong-type dwelling, Samyangdong-type pottery, Oedodong-type pottery